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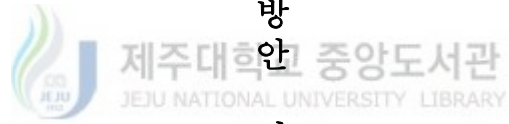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들림쓰기를  
활용한  
쓰기  
지도  
방안  
연구



윤지혜

2015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석사학위논문

‘돌림쓰기’를 활용한 쓰기 지도 방안 연구

Study of Method of Instruction of Writing using  
‘Writing by Turns’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윤 지 혜

2015년 2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석사학위논문

‘돌림쓰기’를 활용한 쓰기 지도 방안 연구

Study of Method of Instruction of Writing using  
‘Writing by Turns’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윤 지 혜

2015년 2월



‘돌림쓰기’를 활용한 쓰기 지도 방안 연구

Study of Method of Instruction of Writing using  
‘Writing by Turns’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윤 지 혜

2014년 11월

윤 지 혜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년 12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2
3.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8
II. 협동 작문과 ‘돌림쓰기’	11
1. 협동 작문	11
2. ‘돌림쓰기’	14
III. ‘돌림쓰기’를 활용한 쓰기 지도 방법 탐색	31
1. ‘돌림쓰기’의 모형 탐색	31
2. ‘돌림쓰기’의 지도 원리	38
IV. ‘돌림쓰기’를 활용한 쓰기 지도의 실제	40
1. ‘돌림쓰기’ 지도의 실제	40
2. ‘돌림쓰기’ 지도의 결과	51
V. 결론	63
참고 문헌	65
ABSTRACT	67
부 록	70

## 표 목 차

〈표 II-1〉 고립된 필자와 집단 내 필자 .....	13
〈표 II-2〉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의 한계 .....	19
〈표 II-3〉 과정 단절화 현상의 유형과 의미 .....	20
〈표 II-4〉 국어 교과서 학습 활동 흐름 .....	21
〈표 II-5〉 2014학년도 제주시내 초등학교 3학년 글쓰기 상황 .....	22
〈표 II-6〉 협동·경쟁·개별 학습 구조의 특징 .....	26
〈표 II-7〉 범교과적 쓰기 능력의 구인 .....	28
〈표 II-8〉 범교과적 쓰기 과제의 유형 .....	29
〈표 II-9〉 쓰기의 개념적 지식 .....	30
〈표 III-1〉 ‘돌림쓰기’ 수업 과정 .....	32
〈표 III-2〉 글쓰기의 과정 .....	35
〈표 III-3〉 ‘돌림쓰기’ 절차별 활동 내용 .....	36
〈표 IV-1〉 쓰기에 대한 학생들의 사전 인식 조사 .....	40
〈표 IV-2〉 ‘돌림쓰기’ 활동 내용-계획하기 .....	43
〈표 IV-3〉 ‘돌림쓰기’ 활동 내용-내용 생성하기 .....	44
〈표 IV-4〉 ‘돌림쓰기’ 학생 활동 예시-내용 생성하기 .....	45
〈표 IV-5〉 ‘돌림쓰기’ 활동 내용-조직하기 .....	46
〈표 IV-6〉 ‘돌림쓰기’ 학생 활동 예시-조직하기 .....	46
〈표 IV-7〉 ‘돌림쓰기’ 활동 내용-표현 및 교정하기 .....	47
〈표 IV-8〉 ‘돌림쓰기’ 학생 활동 예시-표현 및 교정하기 .....	48
〈표 IV-9〉 ‘돌림쓰기’ 학생 활동 예시-내용 생성하기 ‘ .....	49
〈표 IV-10〉 ‘돌림쓰기’ 학생 활동 예시-조직하기 ‘ .....	49

〈표 IV-11〉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학습 절차	51
〈표 IV-12〉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쓰기 활동 분석 방법	52
〈표 IV-13〉 ‘돌림쓰기’를 하지 않은 학생의 쓰기 결과 예시	53
〈표 IV-14〉 ‘돌림쓰기’를 하지 않은 학생의 쓰기 결과 분석	53
〈표 IV-15〉 ‘돌림쓰기’를 한 학생의 쓰기 결과 예시	55
〈표 IV-16〉 ‘돌림쓰기’를 한 학생의 쓰기 결과 분석	56
〈표 IV-17〉 ‘돌림쓰기’ 평가 기준표	57
〈표 IV-18〉 ‘돌림쓰기’ 지도 유무에 따른 결과 비교	59
〈표 IV-19〉 쓰기에 대한 학생들의 사후 인식 조사	61


**그림 목 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II-1] (돌림노래) ‘동네 한 바퀴’ 악보	15
[그림 III-1] ‘돌림쓰기’ 모듬 구성	31
[그림 III-2] ‘돌림쓰기’ 전개 상황 구체화	34
[그림 IV-1] 좌석 배치도	42
[그림 IV-2] ‘돌림쓰기’에서의 ‘고쳐쓰기’ 절차	50

## 국 문 초 록

# ‘돌림쓰기’를 활용한 쓰기 지도 방안 연구

윤 지 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전 제 응

본 연구는 초등학교 중학년 학생들이 쓰기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다양한 주제에 쓰기 상황을 접목시켜 내용교과 지식 습득에도 도움이 될 만한 협동 쓰기 지도 방안으로서 ‘돌림쓰기’를 제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돌림쓰기’란, 한 모둠의 구성원들이 쓰기의 각 과정마다 서로 활동한 내용을 돌려 읽고 점검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의 상위인지 역할을 해주는 쓰기 전략이다. ‘돌림쓰기’를 통하여 학습자들은 쓰기의 과정을 익히고, 상위인지 활용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느끼며 쓰기 과정 중에 일어나는 ‘점검하기’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돌림쓰기’ 지도 방안을 내용교과 적용 중심으로 구안하여 ‘쓰기를 위한 학습(learning to write)’과 ‘학습을 위한 쓰기(writing to learn)’, 두 가지 쓰기 상황에 알맞게 적용·지도하고자 한다. 국어 교과에서 학습한 쓰기 전략을 내용교과 학습에 적용함으로써 쓰기 전략을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내용교과의 지식 습득에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II장에서는 협동 작문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돌림쓰기’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또한 ‘돌림쓰기’의 필요성을 크게 세 가지 원인 즉, 과정 중심 쓰기의 한계, 협동 작문의 효용성, 내용교과 쓰기의 필요성에서 찾았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교과에 적용할 수 있는 ‘돌림 쓰기’를 구안하여 그 모형을 탐색하였다. 이 모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바탕 지도 원리로써 첫째, 반복 학습 효용의 원리, 둘째, 어울림의 원리를 들었다.

Ⅳ장에서는 내용교과 적용을 위한 ‘돌림쓰기’를 2009 개정 교육과정 3~4학년군 국어㉔와 3학년 2학기 사회과 내용에 접목시켜 지도해 보았다. 실제 수업 적용은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3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또 다른 한 학급에는 같은 주제로 글쓰기 과제를 제시하되, ‘돌림쓰기’에 대한 지도 없이 쓰기 상황을 조성하여 얻은 결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쓰기 교육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돌림쓰기’를 통하여 학생들의 쓰기의 과정을 인식하고, 즐겁게 참여하였다. 초등학교 중학년 학생들은 모둠원들과 함께 쓰기의 과정을 거치며, 내용 생성과 예상 독자에 대한 쓰기 불안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반복 활동을 통하여 쓰기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학습하였다.

둘째, 과정 중심 쓰기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과정의 형식화, 상호작용의 형식화를 극복하고, 학생들이 서로의 상위인지 역할을 하며 쓰기의 과정마다 점검하기가 이루어져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쓰기 상황이 조성되었다.

셋째, 쓰기의 주제를 내용교과의 학습 주제로 선정하여 ‘학습을 위한 쓰기(writing to learn)’로서의 쓰기 영역을 확대하였다. 내용교과 수업을 통해 학습하여야 할 교과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기억해내고 정리하여 조직하고 다시 글로 표현함으로써 쓰기 능력 향상은 물론 교과 학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쓰기 능력의 중요성과 쓰기가 지닌 다양한 학습 기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과정에는 쓰기 능력의 신장이나 쓰기의 활용 면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개선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돌림쓰기’의 적합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학년별, 교과별, 단원별 특성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현장 적용을 통한 검증과 보완이 필요하므로 추후에 이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기를 제언한다.

주요어 : 과정 중심 쓰기, 협동 작문, 내용교과 통합쓰기, 상위인지, 점검하기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장에서 학생들과 쓰기 활동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 중 가장 곤란한 점은 쓰기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자주 해야 하는 활동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상황과 주제를 막론하고 쓰기 활동 자체를 꺼려한다는 사실이다. 쓰기에 대한 학습량은 많지만 실제 쓰기 과정 중에서 학습한 내용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쓰기를 즐거워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본 연구자는 회의적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더 나아가 본격적인 쓰기 활동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쓰기의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더불어 새롭게 학습하는 사회와 과학 교과 내용을 정리하는 데 있어 서툴고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을 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본 연구자는 학생들이 보다 더 쓰기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다양한 주제에 쓰기 상황을 접목시켜 내용교과<sup>1)</sup>에서의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만한 지도 모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방안으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선호하며, 그 과정에서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고 그 결과 또한 매우 긍정적임을 확인함으로써 함께하는 협동 학습, 특별히 내용교과에서의 협동 작문을 통한 쓰기 지도 방안을 구안하게 되었다.

구체적 쓰기 지도 방안을 살펴보았을 때, 현행 쓰기 교육은 5차 교육과정부터 도입된 과정 중심 쓰기 지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계획하기 → 내용 생성하기 → 조직하기 → 표현하기 → 고쳐쓰기'의 전략을 익혀 쓰기 활동을 학습한다. 이를 통해 얻어지는 학습적 효과는 뛰어나지만 이러한 '쓰기의 과정'을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습득하기까지는 많은 반복과 노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 과정을 이해하여 쓰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한 명의 교사가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협동 작문의 연구 결과를 고찰하고, 효과적인

---

1) 내용교과는 배경 학문에서 이룩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과를 말하며(한철우, 2003: 261) 주로 사회과와 과학과가 이에 해당한다.

과정 중심 쓰기 지도를 구현하며, 실제적인 적용은 내용교과의 학습 지식을 주제로 하는 쓰기 지도 방안으로써 ‘돌림쓰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돌림쓰기’란, 한 모둠의 구성원들이 쓰기의 각 과정마다 서로 활동한 내용을 돌려 읽고 점검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의 상위인지 역할을 해주는 쓰기 전략이다. 이는 기존의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의 한계로 지적되는 점검하기 지도의 부재와 일련화된 쓰기 과정 지도, 형식적인 상호작용을 극복하기 위함이며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쓰기 상황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돌림쓰기’를 통하여 학습자들은 쓰기의 과정을 익히고 서로의 상위인지 역할을 하며 쓰기 과정 중에 일어나는 ‘점검하기’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돌림쓰기’ 지도 방안을 내용교과 적용 중심으로 구안하여 ‘쓰기를 위한 학습(learning to write)’과 ‘학습을 위한 쓰기(writing to learn)’, 두 가지 쓰기 상황에 알맞게 적용·지도하고자 한다. 국어 교과에서 학습한 쓰기 전략을 내용교과 학습에 적용함으로써 쓰기 전략을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내용교과의 지식 습득에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 2. 선행 연구 검토

초등학교 중학년 학생들이 협동 학습을 통해 쓰기의 과정을 이해하며, 자연스럽게 내용교과 학습으로의 쓰기 상황 적용을 위한 지도 방안으로써의 ‘돌림쓰기’를 제안하는 것이 목적인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쓰기 교육의 큰 흐름인 과정 중심 쓰기 교육과 협동 작문 연구, 그리고 내용교과 쓰기를 다룬 선행 연구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 가. 과정 중심 쓰기 연구

과정 중심 쓰기는 5차 교육과정부터 도입되어 학생들이 ‘계획하기 → 내용 생성하기 → 조직하기 → 표현하기 → 고쳐쓰기’의 전략을 익혀 쓰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이성영(2000)은 초등학생들의 쓰기 능력 발달은 '선적 발달'과 '동시적 발달'이 결합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초등학생들이 설명문이나 논설문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은 '인지용량의 한계' 혹은 '초인지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자기 글에 나타난 오류는 잘 인식하지 못하면서 남의 글의 오류는 잘 잡아내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을 초등학생의 인지용량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이것은 초등학생들이 '인지용량의 한계' 때문에 '점검하기'를 잘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는 점에서 또래 집단이 서로의 메타인지가 되어 '점검하기'를 실행해 보고자 하는 이 연구에 도움을 주었다.

이재승(2002)은 학생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쓰기의 과정을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정리하였다. 특히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의 효과 및 의의와 더불어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상위인지의 중요성을 말한 점은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스로 상위인지 활용에 익숙하지 못한 초등학교 중학년 학생들이 협동 작문을 함으로써 동시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생들 서로가 서로의 상위인지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돌림쓰기' 모형 구안에 있어 기본적인 바탕이 되었다.

전제웅(2000)은 '학생의 <쓰기 활동>은 있으나 <쓰기 학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과정 중심 쓰기 교육에 대한 비판에 따라 이를 '실제의 현상'으로 확인하여 원인 규명과 함께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의 '과정 단절화 현상'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그 원인으로 '상향식 접근 지도 강조', '회귀성이 부족한 지도', '점검하기 지도의 부재'를 들었다. 이 연구는 '과정 단절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초등학생 필자의 '지금까지 쓴 텍스트'를 활용하는 방안으로써 '디더쓰기'를 제안하였으며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의 역기능과 그 원인을 규명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과정 중심 쓰기'의 '회귀성' 및 '점검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돌림쓰기' 모형에 큰 시사점을 주었다.

송의련(2006)은 학생들과 교사들의 실태 조사를 통해 쓰기 전 단계의 아이디어 생성을 도울 수 있는 사전 기초 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쓰기 전 과정 수행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쓰기 전 단계의 교수·학습 전략'을 구안·적용하여 쓰기 전 아이디어 생성·조직 전략 지도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경

협동 글쓰기 활동에서 쓰기 능력 상, 중, 하 집단 학생들이 쓰기 능력 향상 결과를 보였으며 쓰기 전략 지도의 중요성과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더 나아가 쓰기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 생성을 한 학생이 일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학생들이 돌아가며 각각의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 생성 기회를 가짐으로써 특별히 내용교과에서 학습했던 지식들을 놓치지 않고 다시 떠올려 조직하여 글로 표현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였다.

이진희(2012)는 학생들이 쓰기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로 '무엇을 써야 할지 떠오르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결과를 통해 글쓰기 시작 단계인 '내용 생성'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따라서 쓰기 전 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쓰기 불안을 줄이는 지도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제안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혼자가 아닌, 동료 필자와 더불어 내용을 생성하면서 쓰기의 과정을 진행해 나가는 쓰기 지도 방법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

#### 나. 협동 작문 연구

협동 학습을 통한 쓰기 학습은 학생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 과정을 함께 함으로써 글쓰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생들은 글을 쓰는 동안 구성원들과 담화 공동체를 형성하여 협력적 상호작용을 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독자와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글을 쓰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은 필자의 역할과 독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예상독자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학생이 필자로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글로 표현할 때 독자와 어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될지 동료 학생이 쓴 글을 평가해주고, 자신도 다른 동료 학생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불분명한 예상 독자에 대한 필자의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협동 학습을 통한 쓰기 학습은 과정 중심 쓰기에서 소홀히 되는 쓰기의 결과물을 보완할 수 있다<sup>2)</sup>. 협동 작문은 과정 중심 쓰기에서 중시하고 있는 개인의 인지적 작용을 활성화 시키고, 독자와의 상호적 언어작용을 촉진함으로써 질

---

2) 과정 중심 쓰기는 글의 내용 생성, 조직, 표현 등에서 필자가 독자와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간과하게 되어 글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적으로 좋은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다.

Dale(1992, 1994a, 199b)은 협동 작문이 쓰기와 학습에서 성장을 촉진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협동 작문의 가장 큰 영향은 학생들의 쓰기 과정에서 서로 참여하고, 주제를 정하는 등 긍정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오택환, 2007: 7, 재인용). 이는 초등학교 중학년 학생들이 모두 협동 작문을 통해 과정 중심 쓰기 능력 및 내용교과 학습 능력이 동시에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었다.

ASHE-ERIC(2001)은 협동 작문의 의의와 필요성 등 이론적 배경을 쓰기와 사회 구성주의와 관련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교실에서 실천 가능한 협동 작문의 과정과 절차, 방법과 전략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오택환, 2007: 7, 재인용).

이재기(1997)는 현행 쓰기 교육이 기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적인 상황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쓰기 활동은 사실 협동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쓰기를 지도할 때 소집단 활동을 중심으로 지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문혜경(2000)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협동 학습을 통한 '모둠 쓰기' 모형을 구안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들의 텍스트 완성도는 분석적 평가 영역인 내용, 조직, 표현 모두 향상되었고, 체크리스트와 자기 반성적 평가서에서는 쓰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을 보였다. 4명의 아동과 면담한 결과, 쓰기의 장점과 특성에 대해 아동들은 비교적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쓰기' 상황 자체를 국어과에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내용교과' 학습을 위한 '쓰기'로서의 영역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박연식(2004)는 동료 협의 활동을 통하여 쓰기 모델을 제시하고 글쓰기 지도에 전략의 훈련기와 전략의 활용기로 나누어 과정 전략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을 때, 글쓰기에 대한 자기 주도적 능력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학습이 곧 활용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훈련이 필요함을 알게 하였고, 쓰기 전략을 혼자가 아닌 또래 집단과 함께 하였을 때 그 상승효과가 크다는 시사점을 주었다. 따라서 국어 교과에서 쓰기 전략을 학습하고 이어서 내용교과

에서 다양한 주제에 따라 협동 작문 형식을 통해 반복 적용함으로써 쓰기 능력 향상을 주도하고자 하는 '돌림쓰기' 연구에 타당성을 높일 수 있었다.

오택환(2007)은 협동을 통한 의미 구성과 창조 과정으로서의 협동 작문 교수·학습의 단계와 절차를 모형화하여 이를 실제 고등학교 교실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협동 작문이 쓰기 능력과 쓰기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였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상·중·하 수준 집단별로 2회에 걸친 검사 결과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협동 작문이 종료된 후 참여한 실험 집단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받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그러나 이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초등학교 현장과는 지도 방법과 결과에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쓰기 학습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중학년 학생에게는 협동 작문 유형으로써의 '돌림쓰기'를 지도하여 그 효과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송재림(2008)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독서 감상문 쓰기를 협동 학습 모형에 적용하여 협동 작문을 실시했을 때의 쓰기 과정을 살피고, 학생이 쓰기 과정별로 작성한 결과물 분석을 토대로 협동 작문의 효과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협동 학습을 실시하기 전과 실시한 후의 과정별 결과물을 비교·분석했을 때 내용, 조직, 표현 면에서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었다. 또한 학생들과 면담한 결과 내용 생성하기 및 고쳐쓰기에 대한 부담감이 감소했다는 것을 밝혔다.

이경아(2009)는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국어 활동을 구현하고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지도 방안으로 새로운 전문가 학습모형, 모둠 돌려쓰기 모형, 돌려가며 고쳐쓰기 모형을 설계하였다. 이는 쓰기의 과정 중 일부분에서 모둠원들이 '돌아가며' 참여한다는 데에 본 연구와 비슷한 점이 있으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교과에 국한된 연구로써 실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차이가 있다.

#### 다. 내용교과 쓰기 연구

글쓰기는 사고하기와 별개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의미 있는 작업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사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기회가 되고, 기존의 사고를 더욱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글쓰기의 장점을 바탕으로 쓰기 활동은 비단 국어 교과의 한 영역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과 학습에 적용 가능한 고등 기능으로써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차경수(1996)에 따르면, 사회과에서 요구하는 사고력은 사실의 이해나 단순 기억보다는 사실과 가치, 가설과 가정, 주장과 근거, 독창성, 종합력 등 고급 사고력이고, 쓰는 기능은 사실상 이러한 고급 사고력의 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과의 학습력과 쓰기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내용교과 쓰기 지도는 현 시대 쓰기 교육에서 꼭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주섭(1998)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범교과적 쓰기의 교육적 가능성을 말하였다. 첫째, 국어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도 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념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쓰기 능력 신장의 가능성을 지닌다. 둘째, 내용교과의 수업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학습 능력 신장의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교수 행위가 적절한지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교수-학습 개선의 가능성을 지닌다. 이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국어 교과서에 제시된 쓰기의 주제에서 더 나아가 내용교과에서의 쓰기 상황 확장의 필요성을 느꼈다.

한송이(2005)는 범교과적 쓰기의 적용 방법으로 통합적 학습 일지를 제안하였다. 통합적 학습일지는 개인적 차원의 의미 구성으로서 쓰기와 사회적 차원의 담화 공동체 참여 기능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기존의 학습일지가 포함하지 않던 담화 공동체 참여 기능을 고려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협동 작문의 유용성을 고려한 본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

박혜경(2009)은 쓰기와 내용교과의 교호성은 사고력이 진공 상태 속에서 신장되는 것이 아니라 교과의 내용 지식을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내용 지식은 쓰기의 수행을 통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확장되면서 궁극적으로 사고력 배양과 학습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쓰기를 통해 교과의 학습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많이 쓰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과의 특성과 장르적 관습에 적합한 쓰기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의 실행을 조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과 지식의 구조와 글쓰기 방식을 고려한 쓰기 과제 및 전략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며 쓰기 전략의 반

복 학습을 위한 쓰기 과제를 내용교과에서 찾고자 하는 본 연구와 연관성이 크다.

나요경(2009)은 고등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수업으로 '역사 글쓰기'를 활용한 수업모형을 개발하여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해 보았다.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흥미나 능력을 파악하고 이해도에 따라 수업 활동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인데, 특별히 읽기와 쓰기를 학습의 기본으로 보고, 역사 교과에서도 쓰기 기능을 매개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 데에 본 연구와 관련이 있다.

이정호(2011)는 범교과적 쓰기를 내용교과의 문식성을 신장시키는 방안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과학과를 중심으로 하여 쓰기의 의사소통 측면을 강조한 과학 글쓰기 프로그램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신장할 수 있는 범교과적 쓰기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밝혔다. 특히 범교과적 쓰기가 단순한 사실에 대한 지식을 익히는 것보다 종합적이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요하는 내용의 학습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 3.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는 초등학교 중학년 학생들이 '쓰기의 과정'을 이해하며, 자연스럽게 내용교과 학습으로의 쓰기 상황 적용을 위한 협동 작문 지도 방안으로써의 '돌림쓰기'를 제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 협동 학습 및 협동 작문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론적 고찰을 한 후에 초등학교 3학년 수준에 맞는 과정 중심 쓰기 지도를 위한 협동 작문 방법으로써의 '돌림쓰기'를 구안하였다. 그 다음 '돌림쓰기'를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2009 개정 교육과정 3~4학년군 국어와 3학년 2학기 사회과 내용을 분석·재구성하여 지도 가능한 전략을 세웠다.

II장에서는 협동 작문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돌림쓰기'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협동 작문의 이론적 토대를 살펴보고, 협동 작문의 유형을 알아보았으며 기존의 협동 작문에서 진화한 형태의



‘돌림쓰기’의 개념을 확립하였다. 또한 ‘돌림쓰기’의 필요성을 크게 세 가지 원인 즉, 과정 중심 쓰기의 한계, 협동 작문의 효용성, 내용교과 쓰기의 필요성에서 찾았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쓰기를 위한 학습(learning to write)’ 위주로 진행되어 온 협동 작문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학습을 위한 쓰기(writing to learn)’가 초등학교 중학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내용교과에 적용할 수 있는 ‘돌림쓰기’를 구안하여 그 모형을 탐색하였다. 이 모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바탕 지도 원리로서 첫째, 반복 학습 효용의 원리, 둘째, 어울림의 원리를 들었다.

Ⅳ장에서는 내용교과 적용을 위한 ‘돌림쓰기’를 2009 개정 교육과정 3~4학년군 국어<sup>④</sup>와 3학년 2학기 사회과 내용에 접목시켜 지도해보았다. 실제 수업 적용은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3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또 다른 한 학급에는 같은 주제로 글쓰기 과제를 제시하되, ‘돌림쓰기’에 대한 지도 없이 쓰기 상황을 조성하여 얻은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 때 교사들이 현장에서 부담스럽지 않게,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을 구안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학생들 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과 상위인지의 활용, 점검하기 전략의 활성화를 중점으로 하여 기존 선행 연구와의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V장은 앞에서 연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결론지으며 시사점 및 제언을 정리하였다.

현재까지의 협동 작문에 대한 연구는 ‘쓰기’ 활동 자체에 대한 연구 즉, ‘쓰기를 위한 학습(learning to write)’ 위주로 진행되어 온 경향이 있으나, 본 연구는 협동 작문 자체를 ‘학습을 위한 쓰기(writing to learn)’에 집중하여 새로운 모형을 구안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처음 내용교과의 학습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내용교과 쓰기에 과정 중심 쓰기 전략을 접목시켜 쓰기의 과정을 반복 학습함과 동시에 내용(지식)의 생성 및 조직·표현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교과에 적용할 수 있는 협동 작문으로서의 ‘돌림쓰기’ 모형을 구안하고 적용해보았다. 그러나 지도 방안을 2009개정 교육과정 3학년의 내용을 기준으로 구안하였으므로 전 학년 교육과정에서 적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 기간이 짧고 적용 횟수가 적어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추후에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



## II. 협동 작문과 ‘돌림쓰기’

초등학교 중학년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혼자 하는 개별학습보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협동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습의 효과를 보다 더 즐겁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에 기반하여 지금까지 협동학습의 효용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쓰기 활동, 즉 협동 작문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고안한 ‘돌림쓰기’ 또한 협동 작문의 일환으로서 모둠원들이 동시에 쓰기 활동에 참여하는 형태이므로 이 장에서는 우선 협동 작문의 개념과 여러 유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어서 ‘돌림쓰기’의 개념과 필요성을 정리하였다.

### 1. 협동 작문

#### 가. 협동 작문의 개념<sup>3)</sup>

협동 작문(collaborative writing)<sup>4)</sup>은 협동 학습을 통해 작문 교육의 목표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즉 협동 학습이라는 방법을 통해 학습자가 작문의 본질과 원리 즉 이론을 이해하고, 작문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며, 작문에 대해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사회 구성주의 관점에서 볼 때 작문은 필자의 생각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의사소통 행위이다. 필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 글을 읽는 상대방이 어떠한지, 글을 쓰고 읽는 상황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므

3) 오택환(2007), “협동 작문이 쓰기 능력과 쓰기 태도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42-44 재인용

4) ‘collaborative learning’을 일반적으로 ‘협력 학습’의 의미로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나, 최근에 ‘협력 학습’이라는 용어 대신, ‘협동 학습’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정문성, 2006: 41)는 것이다. 더불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협동 작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협동 작문(collaborative writing)’은 쓰기 전·중·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동료 협의, 동료 평가 등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로 작문은 필자만의 개인적, 일방 통행적 행위가 아니라 독자에 대한 이해와 정서적 공감력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자료를 찾아 상호 의사소통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작문 과정은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고, 사고력이 증진되며, 타인에 대한 이해력이 강화된다. 또 복잡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사용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논리력과 창의력이 증진된다.

국어과에서 수행하는 협동 작문의 목표는 협동 학습이라는 방법을 통해 학습자가 쓰기의 본질과 원리, 즉 이론을 이해하고 쓰기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며 쓰기에 대해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또 협동 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자기 자신의 학습 활동과 자료를 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하는 개별성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어과 협동 작문의 목표는 협동 학습을 통해 학습자 개인의 쓰기에 대한 지식과 기능, 태도를 신장하는 것이다.

협동 작문의 가장 큰 영향은 학생들의 쓰기 과정에서 서로 참여하고, 주제를 정하는 등 긍정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협동 작문 과정에서의 의미 협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동 작문 집단 내에서의 구성원의 역할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협동 작문의 연구는 의미 협상으로서의 담화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쓰기에 강조점을 둔 사회구성주의자들의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비고츠키는 ‘근접 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 1978)’에서, 바흐친은 ‘대화주의(dialogic, 1981)’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의미를 강조하였다(Dale, 1992).

협동 작문은 쓰기와 학습에서 성장을 촉진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협동 작문의 가장 큰 영향은 학생들의 쓰기 과정에서 서로 참여하고, 주제를 정하는 등 긍정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공동 저작하기는 학생들이 서로의 아이디어를 일반화하고, 유효하게 계획하고, 아이디어를 토의하고, 그들이 선택한 단어, 구조, 생각 수준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Dale, 1994a, 1994b).

협동 작문 과정에서의 의미 협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동 작문 집단 내에서의 구성원의 역할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집단 구성원의 역할은 작문 과제와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부여되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작문 활동의 목표와 계획과 작문 과제에 관한 의사결정의 통로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밝혀져야 하며, 협동 작문 활동에 대한 집단 구성원의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협동 작문 과정에서의 의미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집단 구성원 모두가 협동적 작문 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제약과 복수의 요구 등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는 일이다(박영목, 2002).

Thomas와 Thomas(1989)는 집단 내 필자와 고립된 필자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고립된 필자의 행동은 침묵하고, 생각에서 쓰기까지 직접적이다. 반면 집단 내 필자의 행동은 구두로 이뤄지고, 반응과 피드백은 필자의 상상에 의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게 된다. 이처럼 집단 내 필자는 고립된 필자보다 여러 가지 점에서 이점을 얻게 되며 이것이 쓰기 능력 향상과 연결된다.

〈표 II-1〉 고립된 필자와 집단 내 필자<sup>5)</sup>

고립된 필자	집단 내 필자
계획한다.	계획하고 계획을 설명한다.
- 과거 경험을 활용한다.	- 과거 경험을 활용하고 설명한다.
- 자신과 대화를 유지한다.	- 집단 구성원과 대화를 유지한다.
- 자기 텍스트의 독자로서 기능한다.	- 다른 독자에게 독자와 청자로서 기능한다.
- 반응을 제안한다.	- 실제적인 반응을 얻는다.
- 피드백을 상상한다.	- 실제적인 피드백을 얻는다.
- 정보를 준다.	- 정보를 주고받는다.
- 사고(thought)와 속내말(inner speech)을 통해 텍스트를 확장한다.	- 구두로(verbally) 텍스트를 확장한다.

5) Thomas와 Thomas(1989: 118).

## 나. 협동 작문의 유형

협동 작문의 유형을 그 활동 목적이나 범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재기(1999)는 협동적 작문 활동을 소개하면서 협동적 쓰기(collaborative writing)와 작문에 대한 협동적 학습(collaborative learning about writing)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협동적 쓰기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단락 혹은 장을 맡아 완결된 한 편의 글이나 보고서 또는 문학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작문에 대한 협동적 학습은 작문의 전 과정에 걸친 협의 활동과 초고 혹은 완성된 작품을 가지고 필자와 독자가 작품에 대해 토의하고 반응하는 동료 반응활동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문혜경(2003)은 소집단 협동학습을 통한 작문 활동은 작문 협의 활동, 협동 작문 활동, 동료 평가 활동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작문 협의 활동은 작문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나 구성원들이 상호 지원하여 작문 활동을 하는 것, 협동 작문 활동은 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것, 동료 평가 활동은 한 편의 글이 완성된 뒤 이루어지는 동료 사이의 피드백 활동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돌림쓰기’는 협동적 쓰기(collaborative writing)와 작문 협의 활동에서 각각 아이디어를 얻어 커다란 하나의 주제에 대해 구성원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개인의 글을 완성하되, 쓰기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나 구성원들이 상호작용 및 점검하며 쓰기 활동을 하는 유형의 협동 작문이다.

## 2. ‘돌림쓰기’

### 가. ‘돌림쓰기’의 개념

‘돌림쓰기’란, 한 모둠의 모둠원들이 쓰기의 각 과정마다 서로 활동한 내용을 돌려 읽고 점검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의 상위인지 역할을 해주는 쓰기 전략이다. 이는 기존의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의 한계로 지적되는 점검하기 지도의 부재와 일련화된 쓰기 과정 지도, 형식적인 상호작용을 극복하기 위함이며 ‘양’보다 ‘질’을 중

시하는 쓰기 상황 조성하고자 한다.

‘돌림쓰기’라는 말은 음악교과에서 지도하는 ‘돌림노래’의 형식을 쓰기 상황에 적용한 것으로써, 초등학교 중학년 수준에서 상위인지를 활용하는 ‘점검하기’ 전략을 극대화하며 학생들의 쓰기 흥미도를 높이고,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지도 목적이 있다.

‘돌림노래’의 뜻은 ‘같은 노래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러 사람이 차례로 부르는 합창’<sup>6)</sup>으로써 악보 위에 쓰여 있는 숫자에 맞추어 순서대로 노래를 시작하고 끝맺는 형식이다. 음악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돌림노래는 초등학교 4학년 음악교과서에 처음 제시되나 그 개념과 제재곡이 어렵지 않고 한두 번 반복을 통해 쉽게 익힐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 중학년인 3, 4학년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돌림쓰기 전략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돌림노래의 대표적 노래<sup>7)</sup>인 ‘동네 한바퀴’의 악보는 다음과 같다.

**동네 한바퀴**  
(돌림노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외국동요

(1) 다 갈 이 돌 자 동 네 한 바 퀴

(2) 아 침 일 께 일 어 나 동 네 한 바 퀴

(3) 우 름 보 고 나 팔 꽃 인 사 합 니 다

(4) 우 리 도 인 사 하 며 동 네 한 바 퀴

(5) 강 아 지 도 갈 이 돌 자 동 네 한 바 퀴

[그림 II-1] (돌림노래) 동네 한 바퀴<sup>8)</sup> 악보

6) 브리태니커 한글 사전.

7) 일반적으로 유명한 돌림노래는 ‘캐논(Cannon)’이 있다.

돌림노래를 부르는 방법은 악보 위에 쓰여 있는 번호 순서대로 그룹별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다. 1파트가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를 부르고 두 번째 단을 시작할 때, 2파트가 다시 처음부터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렇게 순서대로 5파트까지 노래를 부르다보면 1파트가 노래를 마치고, 다음 2파트, 3파트, 4파트, 5파트가 차례대로 '강아지도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를 부르며 노래가 끝나게 된다. 돌림노래의 원리는 동시에 다양한 무리가 노래를 부르더라도 화음이 어우러져 부르고 듣기에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돌림노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국어과 쓰기 지도에서 '돌림쓰기'를 제안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협동 작문의 영역 확대이고, 둘째는 초등학교 중학년 학생들이 쓰기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것<sup>9)</sup>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상황과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쓰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내용교과에서 학습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 보다 효율적인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는 스스로 상위인지를 활용하여 '점검하기' 전략을 통한 과정 중심 쓰기 적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초등학교 중학년에게 '돌림쓰기'를 제안함으로써 타인이 자신의 상위인지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 나. '돌림쓰기'의 필요성

돌림쓰기는 기본적으로 '내용교과 적용'을 위한 협동 작문의 유형으로 정의하여 모형을 탐색하고자 한다. 나날이 그 필요성이 높아지는 '학습을 위한 쓰기(writing to learn)'를 고려한 것으로 국어과만의 쓰기가 아닌, 학습 도구로서의 쓰기의 역할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가 '돌림쓰기'를 구안하게 된 것은 실제 교실에서 수업할 때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쓰기 지도 방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중학년 학생들은 국어 교과에서 직·간접적으로 쓰기의 과정을 학습하지만 잘 활용하지 못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다양한 쓰기 상황을 부담스러워 했다. 그리고 또래 학생들과 함

8) 2009개정 교육과정 4학년 음악(비창, 주대창)- 첫째 마당 음악, 우리들의 친구 '리듬 악기 친구'

9) 쓰기 활동 중 '점검하기' 활성화 및 학생 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 등 과정 중심 쓰기 지도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쓰기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게하는 모둠 활동에는 대부분 그 주제와 과제가 무엇이든지 즐겁게 참여하여 바람직한 성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새롭게 배우기 시작한 사회과, 과학과 학습 내용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학습해야 하는지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고민해 본 결과 '돌림쓰기'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과정 중심 쓰기의 한계

제5차 교육과정부터 적용되어 온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은 이전의 쓰기 지도와 비교하였을 때, 학생들이 의미를 구성해가는 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후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과정 중심 쓰기 교육에도 여러 한계 양상이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다.

이재승(2002)<sup>10)</sup>은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결과 경시의 오류 가능성이 있다. 현재 과정 중심 쓰기 지도가 결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피하려다 보니 정작 쓰기에서 중요한 측면인 결과를 무시하는 결과를 빚었다(Gorrell, 1983: 273)는 것이다. 과정 중심과 결과 중심의 목적은 모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데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과정과 결과를 통합적인 견지에서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분절화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쓰기의 각 과정을 엄격히 구획화한다면 그들은 이들 부분들을 모아 하나의 통일성 있는 전체를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다.

셋째, 선조화의 오류 가능성이 있다. 학생들은 과정 중심 쓰기 학습을 통해 일련의 쓰기 과정을 선조적(linear)인 것으로 파악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쓰기 과정의 회귀적 측면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게 되면, 이들 순서대로만 쓰기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초고를 쓰면서 열개(개요)를 다시 고치는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쓰기 전체 과정에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수정은 초고를 쓴 후에 다듬는 활동 정도로 파악하는 경향이 짙다. 수정 또는 교정에 대해 적극적인 관점을 갖도

---

10) 이재승(2002: 105-112), 『글쓰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과정 중심 접근-』, 교육과학사.

록 해서, 일련의 쓰기 과정에서 수정 활동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무조건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할 가능성이 있다. 학생들에게 단순히 과제만 제시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 글을 쓰게 하는 것만을 강조하면, 학생들은 쓰기 과정이 회귀적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하며 이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

다섯째, 인지 전략 자체에 만족할 가능성이 있다. 얼른 떠올리거나 생각 그물 만들기는 잘 하는데, 글은 제대로 못 쓰는 경우는 종종 볼 수 있다. 효과적으로 연결 짓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략을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활동 위주로 끝나버릴 우려가 있다. 활동은 왕성하게 하는데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활동은 있으나 학습은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Applebee(1984: 187) 과정 중심의 쓰기 활동이 잘못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과학이나 사회과에서의 쓰기 활동은 주로 선수 학습의 정도를 파악하거나 학습한 후에 학습한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얼른 떠올리거나 생각 그물 만들기는 별로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과학이나 사회과에서 얼른 떠올리거나 생각 그물 만들기 활동을 하지만, 정작 이 활동은 실제로 글을 쓰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내용교과에서의 쓰기 활동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지적하면서 활동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과정 중심의 쓰기 교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활동(전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과정 중심의 쓰기 교육을 할 때에는 이들 활동(전략)들이 실제로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지 과정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행위를 필요로 한다. 곧, 상위 인지 전략을 적절히 활용하여, 이들 활동들이 실제의 글쓰기 활동과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고도로 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쓰기만을 강조할 우려가 있다. 일상생활에

서는 즉흥적으로 글을 쓰게 되는 경우도 많다. 과정 중심 접근은 엄격한 틀을 지니고 있고 고도로 의식을 요구하는 과제, 공식적인 독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비교적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쓰기 활동만 강조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즉흥적, 직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쓰기 행위를 도외시킬 수 있다(Faigley et al., 1981).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고도의 의식적인 행위가 필요한 글쓰기만을 요구할 경우에, 글을 쓰는 데 대한 부담이나 두려움을 갖게 하기 쉽고 자칫 쓰기를 싫어하게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II-2〉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의 한계(이재승, 2002)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의 한계
1) 결과 경시의 오류 가능성
2) 분절화의 오류 가능성
3) 선조화의 오류 가능성
4) 일련의 과정만을 거치게 할 가능성
5) 인지 전략 자체에 만족할 가능성
6) 활동 위주로 끝나버릴 가능성
7) 의식적 쓰기만 강조할 가능성

전제웅(2000)은 ‘쓰기’를 ‘부분 과정’으로 세분화시켜 지도하면, 그 각각의 ‘부분 과정들’과 ‘실제의 글쓰기’가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맺지 못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 쓰기 교수·학습 활동에서 ‘과정 분석적 접근’만을 강조하는 것은 ‘과정의 단절화’<sup>11)</sup>를 초래하여 ‘실제의 글쓰기’ 과정이 역동적인 의미 구성이 되지 못하고 ‘부분 과정들’의 합산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정 단절화’란 쓰기 교수·학습 활동 전개에서 부분 활동 과정들이 실제 글쓰기에서 역동적인 의미 구성 관계를 갖지 못하는, 관계 단절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전제웅은 학생들의 교과서를 활용한 실제 수업 내용 중 “‘공통점과 차이점’이

11) ‘과정 단절화’는, 쓰기 지도와 학습을 위해 전체를 부분 과정으로 나눌 때, 각각의 부분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 개념이다.

드러나게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쓴다.”라는 목표중심 단원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학생들의 과정 단절화 현상을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표 II-3〉 과정 단절화 현상 유형과 의미(전제웅, 2000)

유형 현상	현상 분석
단순 재인 반응 현상	* 내용 생성하기에서 생성한 것들을 추가 또는 삭제 없이 그대로 실제 글쓰기 내용에 옮겨 놓는 경우
구조 고착화 현상	* 글의 내용 생성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드러난 유형 * 조직 측면에서 최상위 명제가 없으며 과제 제시 순서에 따른 나열적 연합 * 글의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접근
전략 전이 약화 현상	* 1차시에 학습한 비교·대조 전략이 2차시에 제대로 전이되고 있지 못하는 경우 * 1학기에 학습한 비교·대조 전략이 2학기에 제대로 전이되고 있지 못하는 경우
기타	도중에 중단한 것, 빈 칸만 있는 것, 유형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 등

이러한 ‘과정 단절화’ 현상으로 인해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쓰기 교수·학습 활동이 학생들에게 역동적 의미 구성과정임을 경험케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자는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의 한계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쓰기의 형식화이다. 쓰기의 형식화는 크게 쓰기 과정의 형식화와 상호작용의 형식화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인 수업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은 교과서에 제시된 차시의 순서에 따라 쓰기를 가르치고 배운다. 2009 개정 교육과정 3~4학년군 국어 ③, ‘3단원 문장을 알맞게’ 8-9차시를 살펴보면, 이 차시의 학습 목표는 ‘상황에 어울리는 문장을 사용하여 전하고 싶은 내용을 글로 써 봅시다.’로써 다음과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표 II-4〉 국어 교과서 학습 활동 흐름

학습 활동	쓰기 과정
① 글을 읽고 상황에 따라 어떤 문장이 주로 사용되었는지 생각하여 봅시다.	배경지식 활성화
↓	
② ①의 글은 각각 어떤 상황에서 쓴 것인지 다음 표에 정리하여 봅시다.	배경지식 활성화
↓	
③ 자신의 생활 속에서 다음 문장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 는지 생각하여 봅시다.	내용 생성하기
↓	
④ 그림을 보고 상황에 알맞게 전하고 싶은 내용을 드러내 기 위하여 어떤 문장을 사용하면 좋을지 생각하여 써 봅 시다.	조직하기
↓	
⑤ ③에서 생각한 상황 중에서 하나를 골라 전하고 싶은 내 용이 잘 드러나게 알맞은 문장을 사용하여 글을 써 봅시 다.	표현하기
↓	
⑥ ⑤에서 쓴 글을 스스로 확인하여 봅시다.	자기 평가
↓	
⑦ ⑤에서 쓴 글을 친구들과 바꾸어 읽고 전하고자 하는 내 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문장을 찾아 써 봅시다.	상호 평가

위와 같은 교과서의 흐름에 따라 쓰기를 학습했을 때 학생들은 각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에는 충실히 따를 수 있겠으나 만약 이러한 흐름이 제시되지 않은 실제 쓰기 상황에서도 이러한 쓰기 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쓰기는 일련화 되어 있지 않고 과정 과정마다 필요에 의해 전 단계, 또는 그 전 단계로의 회귀를 통하여 글을 보완해 갈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쓰기 교육에서는 쓰기의 과정이 선조적이고 일련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쓰기 전략을 학습하거나 적용하는 데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쓰기가 역동적인 의미 구성 과정임을 이해하기에도 부족함이 있다.

둘째, 쓰기 전략 적용의 어려움이다. 이는 학생들이 쓰기를 형식적으로 학습했

기 때문에 과생되는 한계 양상이다. 학생들이 쓰기를 학습하나 실제 활용하지 못하는 학습과 적용의 괴리감은 현장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2014학년도 개학 후 제주시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주어진 글쓰기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표 II-5〉 2014학년도 제주시내 초등학교 3학년 글쓰기 상황

쓰기 상황	비고
- 새 학기 나의 다짐쓰기	- 학급 활동
- 개교기념일 백일장	- 학교 행사(시상)
- 미래 과학 글짓기	- 학교 행사(시상)
- 4.3 사건 관련 동영상 보고 소감문 쓰기	- 학교 행사(시상)
- 장애인의 날 글짓기	- 학교 행사(시상)
...	...

위의 쓰기 상황마다 학생들이 글을 쓰는 과정을 지켜본 결과, 학생들은 국어 교과서에서 글을 쓸 때에만 주어진 과정을 따라 쓰기 전략을 활용할 뿐 그 외의 상황에서는 대부분 무조건 쓰기부터 시작하였다. 쓰기의 목적도, 예상 독자도, 충분한 내용 생성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고쳐쓰기나 상호 평가도 없이 무조건 써 내려가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면서 과정 중심 쓰기 전략의 적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학생들의 쓰기에 대한 부담 및 불안 증가이다.

이진희(2012)<sup>12)</sup>는 초등학생의 82.7%가 1회 이상의 쓰기 불안 경험이 있음을 밝히면서 '사회적 환경 요인 > 정서 요인 > 물리적 환경 요인 > 필자 인지 요인 > 쓰기 과정 인지 요인' 순으로 쓰기 불안의 요인이 있다고 했다. 이는 쓰기와 관련된 지식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글을 쓰는 필자가 독자를 바라보는 인식에 대한 교육과 독자로서 필자를 어떻게 대하느냐하는 태도 요인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쓰기 불안 횟수가 높아지며 쓰기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로 '무엇을 써야 할 지 떠오르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쓰기 학습의 기간이 쓰기 호감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지

12) 이진희(2012), “초등학생 쓰기 불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못하고 있으며 충분한 내용 생성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쓰기 과제를 제시할 때에도 많은 학생들이 가장 자주 물어 보는 질문은 “쓸 내용이 없어요.”, “얼마나 써야 돼요?” 등인데 분량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내용 생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은 쓰기 상황에서 바른 글씨, 맞춤법에 대한 부담감, 시상 유무에 따른 태도의 변화 등을 보이며 대부분의 주어진 쓰기 상황에 대한 부담감을 표현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을 때 현행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의 한계 양상으로는 쓰기의 형식화, 쓰기 전략 적용의 어려움, 쓰기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 및 불안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는 교사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인식하여 ‘돌림쓰기’의 필요성을 더했다.

## 2) 협동 작문의 효용성

협동 학습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Slavin, 1989; Johnson & Johnson, 1999; 정문성, 2006).

첫째, 긍정적 상호의존성(positive interdependence)이다. 이는 개인의 노력이 모든 집단 구성원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긍정적으로 의존해서 학습 목표에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긍정적 상호의존성을 증진시키는 요소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 긍정적 상호관계, 정신건강의 세 가지가 있다. 공동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은 구성원 간, 서로의 보살핌과 헌신을 통해 긍정적 상호 관계(positive relationships)를 증진시킨다. 또한 개인은 협동을 통해 경쟁이나 개별 구조에서보다 더 많은 성공 기회와 높은 생산성을 경험하게 된다.

둘째, 대면적 상호작용(face-to-face interaction)이다. 집단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 서로가 도와주며, 격려하며,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며, 긍정적으로 피드백 하는 과정에서 대면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협동 집단에는 여러 유형의 구성원이 존재하게 된다. 외향적 성격과 내향적 성격의 학생, 우수한 학업 성취와 그리 못한 학업 성취를 보이는 학생, 능동적 적극적인 태도와 수동적 태도를 보이는 학생 등 서로 다른 유형의 학생들이 서로 존중해 주고 차이를 인

정해 주고 격려해 줄 때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다.

셋째, 개별 책무성(individual accountability)과 집단 책무성(group accountability)이다. 협동 학습에서 구성원 개개인은 다른 구성원에 대해 개인적인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맡은 역할과 임무를 완수하여 개인적인 의무와 책임을 완수해야 전체 집단이 원활하게 주어진 소임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집단 책무성은 주어진 집단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집단 구성원의 전체적인 의무와 책임을 말한다. 이러한 책무성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도움을 원하는 사람, 그리고 교사 모두에게 중요하며 성공적인 협동 학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다.

넷째, 성공을 위한 기회 균등(equal opportunities for success)이다. 이는 구성원 개인의 기본적 능력에 관계없이 구성원 누구나 모두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협동 학습은 학업 성취의 높고 낮음, 적극적 능동적 태도의 유무와 관련 없이 구성원 모두에게 동등하게 기회가 주어지며, 누구든지 성공을 위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가능성은 충분하게 열려 있다.

이외에 동시다발적 상호작용(simultaneous interaction) 등이 있다. 이는 여러 모듈들이 동시에 자신들 모듈 안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교실 전체적으로 보면 상호작용의 양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특징들은 모든 협동 학습의 종류에 상관없이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을 최대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런 특징이 많이 반영된 협동 학습 모형이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정문성, 2006). 따라서 협동 학습을 바탕으로 하는 협동 작문,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돌림쓰기' 또한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 활성화를 통한 쓰기 과정 중의 점검하기 전략 활용, 서로의 상위인지 역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리라 예상한다.

협동 학습의 특징과 장점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경쟁학습과 개별학습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협동 학습 구조는 소규모 집단에 공통의 학습 목표가 주어지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이 서로 도우면서 학습을 하게 된다. 여기서는 긍정적인 상호의존성을 가지게 되어 타인이 성공해야 자신도 성공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경쟁 학습 구조는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만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위해서



학생들은 서로 경쟁상대로 공부를 하게 된다. 다른 학생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공부해야 하며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성적이 매겨진다. 즉 타인의 실패가 곧 나의 성공으로 인식된다.

개별 학습 구조는 다른 학생과는 관계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 속도로 혼자 공부를 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 목표를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학업 성취만 관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타인의 이익이나 손해에는 관심이 없다.

Johnson & Johnson(1999)은 협동 학습과 경쟁 학습, 그리고 개별 학습의 구조 비교를 통해 협동 학습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각 학습 구조는 교수 활동의 형태, 학습 목표에 대한 인식, 학생의 활동, 그리고 학습자의 도움을 받는 원천 등에 따라 달라지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II-6〉 협동·경쟁·개별 학습 구조의 특징<sup>13)</sup>

구분	협동 학습	경쟁 학습	개별 학습
교수 활동 형태	고급 사고력 중심의 내용을 다양한 활동으로 교수함.	학습해야 될 내용이 분명하며 경쟁규칙이 분명히 제시됨.	지식이나 기능을 학생 스스로 얻을 수 있도록 과제가 분명하며, 해야 될 행동도 세분화됨.
학습 목표의 중요성 인식	학습목표는 각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각 학생은 집단에 그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함.	학습목표는 학생들에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단지 성공과 실패에 관심을 가짐.	학습목표는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며, 언젠가는 자신의 목표가 달성되기를 기대함.
학생의 활동	각 학생은 다른 학생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며 아이디어와 자료를 공유하고, 공동책임, 집단에 기여, 과제분담, 구성원의 다양성을 이용함.	각 학생은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히 가지며, 경쟁자의 진보 상태를 평가하며, 능력, 기술, 지식 등을 비교함.	각 학생은 다른 학생에 의해 간섭받지 않으며, 과제 완성에 대해 자신이 책임지며 자신의 과제수행의 질을 스스로 평가함.
도움의 원천	동료 학생	교사	개별 학습자나 교사

협동 학습의 다양한 장점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중학년 학생들이 협동 작문의 활동을 했을 때 쓰기에 대한 부담감 및 불안을 줄이고 예상독자와의 상호작용을 극대화 시키면서 쓰기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13) Johnson & Johnson(1999), Learning together and alone: Cooperation, competition, and individualization, Boston: Allyn & Bacon.

### 3) 내용교과 쓰기(Content-Area Writing)의 필요성

내용교과의 쓰기 과제가 국어과의 쓰기 과제와 다른 점은 쓰기를 구성하는 내용이 해당 교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며 쓰기 과제 자체가 해당 교과의 학습 내용을 습득하고 담화 관습을 익히는 도구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교과적 쓰기<sup>14)</sup> 과제의 유형과 형식을 규명하고 이를 내용교과의 특성에 맞게 재구조화하여 내용과 쓰기를 결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원리와 전략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범교과적 쓰기의 목적은 ‘교과의 학습력과 쓰기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이를 위해 필요한 쓰기 능력의 구인을 일반적인 쓰기 능력에 대한 논의<sup>15)</sup>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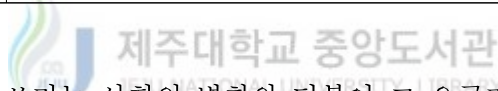
14) 이주섭(1998: 11)은 범교과 쓰기의 개념을 “국어과를 포함한 전체 교육과정에서의 쓰기(WAC: Writing Across the Curriculum)을 의미한다.”고 했고, 박혜경(2009: 12)은 ‘교과의 학습력과 쓰기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전체 교육과정에서의 쓰기’로 정의했다.

15) 박태호(2003: 32~33)는 쓰기 능력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지식, 전략 및 기능, 태도를 들고 있다. 지식은 사회·문화적 지식, 개념적 지식, 상위인지지식으로 나누고 전략은 생성하기 전략, 조직하기 전략, 초고쓰기 전략, 감각적 표현 전략, 정교화 전략, 점검하기 전략, 교정하기 전략 등으로 나누고 있다. 태도는 쓰기에 대한 동기, 흥미, 습관 자세, 태도, 가치 등으로 구분하였다.

박영목(200: 248)에 따르면 쓰기 능력은 정형화된 텍스트를 생산하는 고정된 능력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 능력으로서, 텍스트의 생산 활동을 원활하게 해 주는 일종의 정수를 둘 수 있는 능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쓰기 활동을 잘 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요인으로 쓰기의 관습에 대한 지식과 쓰기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문제 해결 전략을 들고 있다.

〈표 II-7〉 범교과적 쓰기 능력의 구인<sup>16)</sup>

범교과적 쓰기의 목표 : 범교과적 쓰기 능력(교과적 학습력 + 쓰기 능력) 신장			
범교과적 쓰기 능력의 구인	지식	내용 지식	· 해당 학문 영역에 대한 지식 · 교과에 대한 지식 · 교과가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한 지식
		담화 지식	· 텍스트 구조, 배열 방식, 장르적 지식, 표현 방법
	전략	인지적 전략	· 과제 분석 전략 · 정교화 전략 · 조직화 전략
		초인지적 전략	· 계획하기 전략 · 조절하기 전략 · 점검하기 전략
태도		· 쓰기 과제에 대한 동기 · 쓰기 과제에 대한 흥미	



이러한 범교과적 쓰기는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그 요구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선 정보화 사회의 기술적 진보와 의사소통 구조의 변화는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크게 변화시켜 학생들이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각종 글을 접하고 쓰는 기회가 늘어났다. 또한 학습자들에게 요구되는 문식성 요구가 달라지면서 학교에서의 문식 요구도 이에 맞게 변화해야 하는데 학교 현장의 실천적인 변화는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다른 교과 시간은 물론 국어시간에서조차 제대로 쓸 기회를 갖지 못하며 학생들이 실제적인 쓰기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는 대신 문제풀이를 통해 쓰기의 수행 과정을 지식으로 이해하고 습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쓰기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쓰기를 국어과만의 전유물이 아닌 전체 교육의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애플비와 랑거(Applebee & Langer, 1986, 재인용)는 주로 사회과와 과학과를 중심으로 범교과적 쓰기 과제의 유형을 연구하였는데 쓰기의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16) 박혜경(2009: 12)

〈표 II-8〉 범교과적 쓰기 과제의 유형

기계적 쓰기	정보적 쓰기	개인적 쓰기	상상적 쓰기
빈 칸 채우기	노트 정리		
짧은 문장 쓰기	기록	저널	이야기
교재를 단순히	레포트	일기	시
배끼는 것	요약	편지	연극 대본
번역	분석		
설명 적기	설득적 쓰기		

제5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국어과의 도구 교과적인 성격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국어과에서 숙달된 기능과 전략들이 그대로 다른 교과 학습에 전이된다고 볼 수는 없었다. 그 이유는 국어과 수업 시간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의 제약이 있고, 쓰기의 주제와 내용, 장르 등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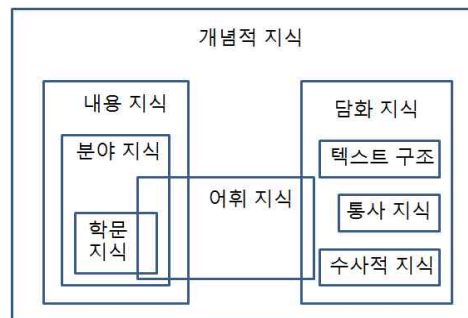
‘내용교과 적용 돌림쓰기’를 제안하기에 앞서 언급했던 ‘쓰기를 위한 학습(learning to write)’과 ‘학습을 위한 쓰기(writing to learn)’를 짚고 넘어가겠다. 쓰기를 위한 학습은 주로 국어과에서 쓰기를 배우는 행위를 말한다. 학생들은 쓰기의 본질, 원리, 실체를 국어과 교육과정 내에서 배운다. 이때의 쓰기는 국어과라는 제한된 맥락에서 이루어지므로, 쓰기 능력 신장에 필수적인 ‘쓰기 상황의 다양성’과 ‘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는 다른 교과의 다양한 쓰기 활동을 통해 쓰기 능력 신장이라는 쓰기 교육의 목표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학습을 위한 쓰기는, 다른 교과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방법적 원리로서의 쓰는 행위를 말한다. 쓰기를 위한 학습과는 달리 주어진 학습 내용의 탐구, 이해, 지식의 재형성, 교과공동체에서의 의사소통 등에 쓰기가 기여하는 점을 인정하고 학습 상황에서 쓰기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쓰기 활동을 위해서는 쓰기의 기능과 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다른 교과의 전문가들이 쓰기 교육에 대한 논의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부분이다.

쓰기 능력의 중요성과 쓰기가 지닌 다양한 학습 기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

육과정에는 쓰기 능력의 신장이나 쓰기의 활용을 위한 노력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 또한 현행 쓰기 교육과정의 한계라고 할 수 있으므로 '내용교과 적용 돌림쓰기'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

〈표 II-9〉 쓰기의 개념적 지식- Alexander 등(1991)



쓰기에 필요한 개념적 지식을 내용 지식과 담화 지식으로 나누었을 때, 이 두 가지 지식이 함께 작용하여야 쓰기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 담화에 대한 지식은 주로 국어과에서 다룰 수 있지만, 내용에 대한 지식은 국어과에서 다루기에는 역부족이다. Park(1986)의 연구에서도 필자가 쓰고자 하는 글과 관련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내용의 생성과 글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교과의 쓰기 과제가 국어과의 쓰기 과제와 다른 점은 쓰기를 구성하는 내용이 해당 교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며 쓰기 과제 자체가 해당 교과의 학습 내용을 습득하고 담화 관습을 익히는 도구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돌림쓰기를 내용교과에 적용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국어과에서 학습한 쓰기의 전략을 다양한 주제와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쓰기의 과정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해당 교과의 학습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두 번째 목적이 있다. 이는 현행 쓰기 교육과정에서는 쓰기 상황이 제한되어 있고, 실제 쓰기를 반복 학습하기에는 국어 교과시간조차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내용교과와 쓰기를 접목시키는 것은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 Ⅲ. ‘돌림쓰기’를 활용한 쓰기 지도 방법 탐색

앞에서 협동 작문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돌림쓰기’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기존의 협동 작문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어 수업 시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쓰기 활동에만 국한되어 왔으며,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의 한계, 협동 작문의 효용성, 내용교과 쓰기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돌림쓰기’ 제안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하였다.

쓰기는 더 이상 국어 교과 수업의 하위 학습 내용이 아니며, 모든 학습 상황에 적용·활용되는 학생들 스스로의 자발적 지식의 표현 활동이므로 이번 장에서는 기존의 국어 수업에서의 협동 작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내용교과에 적용 가능한 쓰기 지도 방안으로써 ‘돌림쓰기’를 활용한 지도 모형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 1. ‘돌림쓰기’의 모형 탐색

돌림쓰기의 과정은 크게 쓰기 전(rewriting) - 쓰기 중(writing) - 쓰기 후(postwriting)의 3단계로 나누었고, 전체 시간은 내용교과의 각 단원을 마무리하는 한 차시로 구성하여 하나의 주제에 대한 일련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돌림쓰기를 위한 기본적인 모둠 구성원은 4명이며 수업 과정은 다음과 같다.

S1 <sup>17)</sup>	S2
S3	S4

[그림 Ⅲ-1] 돌림쓰기 모둠 구성

17) 한 모듬의 구성원은 4명으로 하고 학생은 자리 배치에 따라 S1, S2, S3, S4로 표기한다.

〈표 III-1〉 돌림쓰기 수업 과정

도입	계획하기
전개	(1), (1)' 18)                      (2), (2)'
	내용 생성하기                      조직하기
정리	(3), (3)'                      (4), (4)'
	표현하기 + 교정하기                      완성(작품화)하기 (고쳐쓰기)

돌림쓰기 절차에서는 다음에 제시한 세 가지 사항을 강조하였다. 첫째, 쓰기 과정마다 상위인지를 활용한 ‘점검하기’ 전략을 활성화시킨다. 둘째, 쓰기 과정은 언제든 회귀 가능하다. 셋째, 모둠원 간에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며 의견을 나누고 함께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의미구성 과정이 되도록 한다. 이 세 가지는 앞에서 논의한 쓰기 교육의 한계 상황을 능동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수업의 진행을 도입, 전개, 정리 3단계로 가정하고 ‘돌림쓰기’ 절차를 마련하겠다. 도입 부분에서는 ‘계획하기19)’로서 교사가 제시하는 큰 제재에 대하여 모둠원

18) 쓰기의 각 과정마다 ‘도돌이표’를 넣은 것은 쓰기의 과정이 한 번만 이루어지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즉 회귀성이 있음을 지도하고자 함이다. ‘도돌이표’는 ‘어느 부분을 되풀이해서 연주하거나 노래하도록 지정하는 기호’로써 이를 만나면 정해진 부분을 두 번 반복하도록 하는 약속이다.

19) 송의련(2006)은 쓰기 전(顛) 과정 전략 지도가 쓰기 능력 수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하면서 쓰기 전 과정 지도에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가. 계획하기

- 1)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쓰는 것인지, 글감과 관련된 배경 지식이 충분한지를 스스로 묻는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 2) 주제를 구체화하여 나타내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제시하거나 주제가 불분명하다.
- 3)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하거나, 글쓰기 전에 완성하기까지의 전체적인 순서나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 4) 글쓰기를 평가를 위한 도구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 5) 글쓰기가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교사가 제시하는 과제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어서 글쓰기에 매우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다.

나. 내용 생성하기



들이 함께 의논하여 ‘글의 주제, 쓰는 목적, 장르, 예상 독자, 분량, 글을 쓰는 방법’ 등을 정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학생들이 쓰기 교수·학습 상황에서 수동적 입장이 아니라 스스로 쓰기의 주인이 되는 능동적 자세를 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처럼 교과서에 주어진 제재와 장르, 교사의 일방적인 안내 의한 쓰기 상황의 강요는 학생들의 흥미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쓰기가 역동적인 의미구성 과정임을 인지하는 데에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 참여 의욕 향상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전개 상황에서는 모둠원들이 세부적인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쓰기 과정을 진행해 나가게 된다. 우선 글쓰기 제재에 대한 ‘내용 생성하기<sup>20)</sup>’를 동시에 시작하고, ‘내용 생성하기’가 끝나면 그 내용을 오른쪽 학생에게 보낸다. 학생1(S1)로부터 생성된 내용을 받은 S2는 S1의 내용을 확인·점검한 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S2의 내용 생성 학습지를 S3에게 보낸다. 이 학습지를 바

- 
- 1) 예상독자를 고려하고, 독자의 수준에 맞는 내용을 생성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 2) 자신들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사나 동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 3) 주제와 관련된 단편적인 정보만을 약간 떠올리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이디어가 활발하게 생성되기 전에 생각을 꺼내는 활동을 멈추어 버리는 경향이 많다.
  - 4) 아이디어의 양이 적고, 아이디어와 아이디어들 간의 연계성이 없는 생각을 나열하는 경향이 있다.

5)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기법에만 의존하여 생성된 정보를 모으는 일에만 집중하고, 정보를 분류하고 계열화하는 작업을 소홀히 한다.

6) 독자를 고려하여 글감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 아이디어를 배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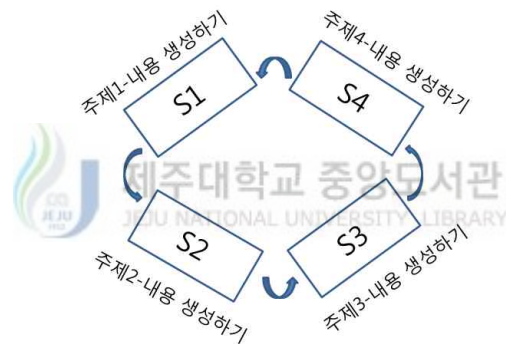
다. 아이디어 조직하기 단계

- 1)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생성된 아이디어들을 작문 목적, 독자 요인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 2) 아이디어들을 범주화하고 명칭을 부여하거나 생성된 아이디어들을 글 구조에 어울리게 구성하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 3) 생성된 정보와 아이디어들을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으로 분류하거나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묶어 내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 4) 생성된 아이디어들을 일정한 원칙에 의해서 조직하는 능력을 거의 소유하지 못한 학생들은 글 구조, 즉 다발짓기에 능숙하지 못하여 자신의 작품을 점검하고 다듬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 5) 아이디어와 아이디어들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몇 가지만을 기억해내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 6) 효과적인 글 구조 파악 훈련을 위한 방안인 자기 교수 훈련 방안에 익숙하지 못하여 글의 의미를 기억해내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을 때까지 교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20) 이재승(2002)은 아이디어를 생성하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활동 및 전략으로 ① 열거 떠올리기, ② 열거하기, ③ 이야기 나누기, ④ 읽기, ⑤ 드라마 활동하기, ⑥ 명상하기, ⑦ 경험하기, ⑧ 저널쓰기 등을 들고 있다.

탕으로 차례로 S3, S4는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반복학습 및 쓸 내용을 추가하게 된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다음 쓰기 과정인 ‘조직하기<sup>21)</sup>’로 넘어가게 된다. ‘조직하기’ 과정에서 또한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처럼 자신이 해당되는 주제에 대하여 우선 생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글을 쓰기 위해 조직하기 활동을 하고 나면, 다른 세 명의 학생들이 돌아가며 조직하기 상황을 점검·보완하게 된다.

모둠원들과 함께 ‘조직하기’ 활동이 끝나면 학생들은 자신의 주제에 대한 글을 쓰는 ‘표현하기’ 활동을 한다. 그리고 각자의 주제에 대한 ‘표현하기’ 활동이 끝나면 앞과 같이 다시 활동지를 돌림으로써 서로의 글 중 내용면, 형식면에서 고쳐 써야 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주도록 한다.



[그림 III-2] 돌림쓰기 전개 상황 구체화

모둠원들이 점검해 준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필자는 자신의 생각을 조정하여 수정·보완할 부분을 고쳐 씌으로써 글쓰기를 마무리한다. 정리 상황에서는 완성된 글을 다시 한 번 돌려 읽어보고 모둠별로 수합하여 작품화할 수 있도록 한다.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둠으로써 학생들이 보고 쓰기의 과정을 떠올릴 수 있게 돕는 것 또한 쓰기 과정의 회귀를 돕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글쓰기 과정을 크게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로 나누고 이들 과정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활동으로 점검하기의 개념을 포함하여 그

21) 조직하기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활동에는 생성된 아이디어를 관련 있는 것끼리 묶기, 중심 개념에서 출발하여 관련된 것을 떠올리고 시각화하기, 열개 짜기, 협의하기 등으로 볼 수 있다.

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III-2〉 글쓰기의 과정

쓰기 전 <sup>22)</sup>	계획하기	돌림쓰기를 통한 점검하기 <sup>23)</sup>
	내용 생성하기	
	조직하기	
쓰기 중	표현하기	
쓰기 후	고쳐쓰기	

기존의 연구는 교정하기 과정에서만 지난 쓰기 과정을 돌아보고 상호 점검하는 활동이 이루어졌다면 돌림쓰기는 각 과정마다 점검하기 활동이 이루어지는 데에 의미가 있다.

초등학교 중학년 수준의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상위인지를 쓰기에 활용하기

22) 쓰기 전 과정의 단계별 활용 전략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과정	특징	과정별 전략 요소	주요 활동	활용 전략
계획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쓰기 상황 분석하기</li> <li>· 글 전체에 대한 개략적 계획 세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쓰기 목적 설정 및 분석하기</li> <li>· 주제 분석 및 설정하기</li> <li>· 예상 독자 설정 및 분석하기</li> <li>· 주제와 독자에 비추어서 자신을 분석하기</li> <li>· 과정별 사용 전략 탐색, 구성하기</li> <li>· 목적에 맞는 쓰기 형식 결정하기</li> <li>· 쓸 내용의 형태를 개략적으로 설계하기</li> </ul>	구조화된 학습지 활용 (계획하기 점검표)
내용 생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사고하기</li> <li>· 배경 지식 활성화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에 대한 자유 연상하기</li> <li>· 중심 내용의 세부 사항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기</li> <li>· 글의 주제를 뒷받침할 소재 찾기</li> <li>· 주제와 관련된 자료 수집·활용하기</li> <li>· 교사나 동료 집단과 협의하기</li> </ul>	브레인라이팅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조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디어의 적절성 판단하기</li> <li>· 정교화 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표현을 위한 적절한 근거 설정</li> <li>· 주제 표현을 위한 아이디어의 타당성</li> <li>· 아이디어 첨가/삭제하기</li> <li>·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 구분하기</li> <li>· 중심 내용들 간의 관계 파악하기</li> <li>· 개요 작성하기</li> </ul>	외곽선 쓰기 지우기 전략 개요 짜기 다발 짓기

23) '점검하기'가 특정 쓰기 과정에서만 일어나는 활동이 아니라, 각 과정마다 언제든지 계속 이루어질 수 있고 요구되어지는 활동임을 지도·강조한다.

에 미숙한 부분이 있으므로 함께 쓰기 활동을 하고, 절차에 따라 돌림쓰기를 하면서 서로의 쓰기를 점검하는 상호작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표 III-3〉 돌림쓰기 절차별 활동 내용

계획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설정 및 분석하기</li> <li>· 주제 설정하기</li> <li>· 독자 설정 및 분석하기</li> </ul>	
(1), (1)'	(2), (2)'
내용 생성하기	조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에 적절한 내용 발견하기</li> <li>· 주제에 적절한 내용 선정하기</li> <li>· 주제를 뒷받침할 소재 찾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발 짓기</li> <li>· 생각 그물 만들기</li> <li>· 열개 짜기</li> </ul>
(3), (3)'	(4), (4)'
표현하기	교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고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의 내용면 교정하기<sup>24)</sup></li> <li>· 글의 형식면 교정하기<sup>25)</sup></li> </ul>
교쳐쓰기 <sup>26)</sup>	

24) 글의 내용면에서는 주제와의 연관성, 문단별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의 관계 등을 점검하여 교정할 수 있다.

25) 글의 형식면을 교정할 때에는 맞춤법, 글씨체, 문단 정렬 등을 점검하여 교정한다.

26) 교쳐쓰기(revision)는 초고쓰기 이후의 작업으로 글의 통일성(coherence)과 응집성(cohesion)을 갖추기 위해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을 완성해 가는 쓰기의 과정이다. 초고쓰기 이후의 교쳐쓰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쓰기의 각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인식하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교쳐쓰기 활동은 유의미하다. 여기에 덧붙여 교쳐쓰기는 쓰기 중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회귀성을 가르쳐 궁극적으로는 학생들 스스로 거시적인 관점까지 교쳐쓰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심유나, 2012: pp. 10-17)

기존의 과정 중심 쓰기 지도에서의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은 표현하기 후에 한 해서만 이루어졌으나 돌림쓰기 과정에서는 각 과정마다 서로의 쓰기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역동적인 쓰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혼자만의 쓰기가 아니라 함께 쓰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글쓰기 과정을 점검해줌으로써 초등학교 중학년 수준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상위인지를 활용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쓰기의 과정은 선조적이지 않고 필요에 따라 회귀될 수 있음을 '도돌이표'를 통해 인식하고, 쓰기의 과정을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학습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표> 고쳐쓰기와 혼동하여 사용하는 용어들

용어	의미
수정하기	글을 쓰는 순간순간마다 틀린 글자를 지우고 다시 쓰거나 단어를 바꾸는 것, 문장의 순서를 달리하는 것, 내용 생성이나 내용 조직 단계로 돌아가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
교정하기	띄어쓰기, 맞춤법, 문장 부호 등에 중점을 두고 고치는 것
편집하기	문법적인 측면보다 디자인적인 측면
다시쓰기	글의 주제를 바꾸는 것처럼 전면적인 수정을 하거나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이 다시 쓰는 것
고쳐쓰기	초고쓰기 이후의 작업으로 글의 통일성(coherence)과 응집성(cohesion)을 갖추기 위해 내용적 요소와 형식적 요소를 완성해 가는 쓰기 과정

## 2. '돌림쓰기'의 지도 원리

'돌림쓰기'는 음악 교과에서의 '돌림노래'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명칭으로써, 음악의 특정부분이 반복되는 특징과 반복을 통해 만들어지는 화음의 어울림이 글 쓰기 양상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Ⅲ장 1절에서 설명한 '돌림 쓰기' 모형의 효과성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타당한 지도 원리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으며 그 원리로 '반복 학습 효용의 원리'와 '어울림의 원리'를 들 수 있겠다.

### 가. 반복 학습 효용의 원리

#### 1) 쓰기 과정 반복

일정한 행위의 반복은 능력 습득 및 향상에 효율적이다. 이는 학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반복을 통해 습득된 능력은 활동 시간은 단축시키고 결과의 질은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돌림쓰기'를 통해 모듈에 속한 한 학생은 네 가지의 주제에 대하여 최소 한 번 이상의 쓰기의 과정 즉, '내용 생성하기 - 조직하기 - 표현하기 - 고쳐쓰기'를 반복하게 된다. 이미 국어 교과 시간에 쓰기의 과정이 있음을 학습한 이후에 '돌림 쓰기'를 해 봄으로써, 각 과정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반복 훈련을 통해 추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쓰기 활동을 할 때에도 이 과정대로 자연스럽게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2) 내용교과 학습 반복

'돌림쓰기'를 하게 되면 '계획하기' 단계에서 각 모듈원들의 소주제를 정하면서 부터 내용교과의 대단원, 소단원 체계를 이해하고 큰 흐름을 인지하게 된다. 이어서 각각 맡은 주제에 대하여 '내용 생성하기' 활동을 위해 학습 내용을 반복하고, '조직하기' 활동을 위해 다시 한 번 학습 내용을 반복한다. 이 때 자기가 맡은 소

주제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맡은 주제에 대한 점검 활동을 하면서 큰 단원의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떠올리고 정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표현하기’, ‘고쳐쓰기’ 활동을 하면서도 단시간 내에 학습 내용을 다시 상기하며, 완성된 글을 게시하여 보게 됨으로써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고 숙지하는데에 충분한 반복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예습보다는 복습이 장기 기억에 효율적이라는 내용교과의 학습 방법에 타당하며, 단순 문제 풀이가 아니라 글쓰기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머릿속에 재구조화 되는 데에 도움이 된다.

#### 나. 어울림의 원리

‘돌림쓰기’는 협동 학습 구조로서 각 모둠마다 공통의 학습 목표가 주어지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이 서로 도우면서 학습을 하는 활동이다. 초등학교 중학년 학생들은 모둠 활동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긍정적 상호의존성이 발생하여 타인이 성공해야 자신도 성공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덧붙여 협동 작문의 효용성으로 앞서 이야기한 대면적 상호작용, 개별 책무성과 집단 책무성, 성공을 위한 기회 균등, 동시다발적 상호작용 등은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을 최대화시키고 함께 열심히 노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내 글’이 아닌, ‘우리의 글’을 완성시키기 위해 모둠원들이 어우러져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거나, 우수한 학생의 활동을 모방하면서 쓰기 능력 향상 및 내용교과의 지식 습득이라는 ‘돌림쓰기’의 목표에 도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 IV. ‘돌림쓰기’를 활용한 쓰기 지도의 실제

이번 장에서는 ‘돌림쓰기’를 실제 수업 상황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현행 쓰기 교육과정의 한계 양상을 극복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된 3, 4학년군 중에서 3학년을 선택하였으며 그 이유는 과정 중심 쓰기 지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학년이기 때문이다. 또한 ‘돌림노래’와 ‘도돌이표’ 등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기에 적합하고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3학년 사회 수업에 돌림쓰기를 적용하였다.

### 1. 내용교과 적용 ‘돌림쓰기’ 지도의 실제

#### 가. 쓰기 전 학생들의 실태 및 인식 조사

##### 1) 쓰기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조사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의 3학년 학생 29명을 대상으로 쓰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IV-1〉 쓰기에 대한 학생들의 사전 인식 조사

(N=29)

응답	5	4	3	2	1	비고
내용	(명)	(명)	(명)	(명)	(명)	
쓰기 선호도	4	5	10	8	2	
과정 중심 쓰기 이해도	0	5	12	10	2	
협동 학습 선호도	25	3	0	1	0	
내용교과 학습 내용 이해도	5	10	8	4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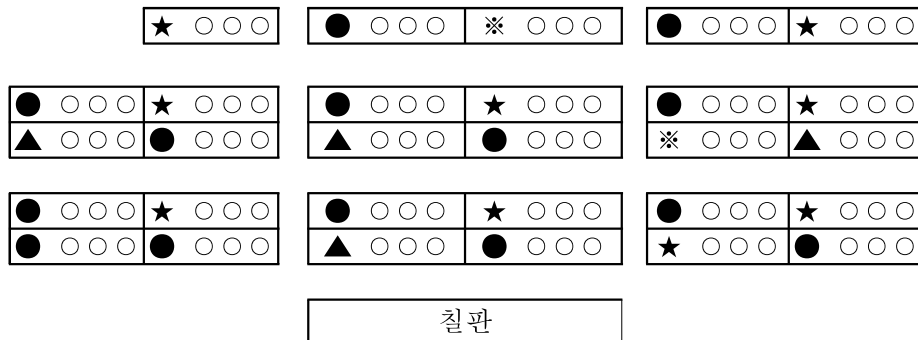
(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이다, 2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학생들은 쓰기 활동에 대해 약 31%의 학생들이 선호를 나타내었으나,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약 34%였다. 쓰기에 과정이 있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은 전혀 없었으며, 과정에 따라 쓰기를 진행하는 학생 또한 거의 없음을 평소 수업에서의 관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협동 학습에 대한 선호도는 약 86% 이상으로 동료 학습자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활동 자체를 즐거워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3학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내용교과 학습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 분포가 비교적 고른 편이나 ‘보통’ 또는 ‘그렇지 않다’는 쪽의 응답률이 약 48%인 것을 볼 때 내용교과의 학습 내용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을만한 지도 방법의 필요성이 인식된다.

## 2) 모듈의 편성

본 연구 대상 학급의 학생 수가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모듈별 4명씩 6모듈과, 5명으로 구성된 1모듈, 총 7모듈으로 편성하였다.<sup>27)</sup> 학습 능력을 잘 나타내는 것은 전체 교과 성적보다는 1학기 국어 성적과 전반적인 학생들의 학업 수행 능력을 담임교사가 판단·분류하여 이질 집단으로 편성하였다.



27) 협동 학습에서 집단의 편성은 이질 집단 편성과 동질 집단 편성의 방법이 있다. 이질 집단은 서로 상이한 요소를 가진 개인이 어느 한 집단에 집중되지 않도록 편성하는 방법이고, 동질 집단은 서로 유사한 요소를 가진 개인끼리 같은 집단이 되도록 편성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집단 편성의 고려 요소는 학습자 개인의 학습 능력, 성격, 사회적 환경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른 요소는 배제하고 학습자 개인의 학습 능력과 협동학습에 용이하게 각 학생들의 성격을 고려하였다.

구 분	★ 스스로 해결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학생
	●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학생
	▲ 도움이 필요한 학생
	※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학생

[그림 IV-1] 좌석 배치도

## 나. 쓰기 전(rewriting) 단계

### 1) 교사 안내(guides): 과제 제시, 돌림쓰기 방법 설명

본 연구에서 학생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선택한 쓰기 과제는 사회 3-2 '2. 달라지는 생활 모습' 단원 마무리와 평가를 위해 단원 전체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모둠에서 정한 새로운 독자에게 '소개하는 글쓰기<sup>28)</sup>' 활동이다.

담임교사는 모둠별로 '돌림쓰기'가 이루어질 것임을 안내하고, 쓰기에는 과정이 있음을 설명한다. 쓰기의 과정에 따라 모둠원들과 협동하여 서로의 내용을 점검하고 보충해가면서 글을 완성해 갈 것임을 설명하였을 때,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친구들이 자신의 글을 다 보게 된다는 사실에 부담<sup>29)</sup>을 느끼면서도 혼자 쓰는 활

28) '소개하는 글쓰기'는 2009 개정 교육과정 3~4학년군 국어① '6. 알맞게 소개해요' 단원에서 학습한 장르이다. 주요 학습 내용 및 활동은 다음 표와 같다.

교과서	차시	주요 학습 내용 및 활동
국어	1~2	· 단원 도입 · 글을 쓸 때에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까닭 알기
국어	3~4	· 대상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소개하는 글을 쓰는 방법 알기
국어	5~6	· 알맞은 낱말을 생각하며 대상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소개하는 글쓰기
국어	7~8	· 대상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소개하는 말하기 · 단원 정리
국어활동	9~10	· 닳고 싶은 인물 발표회 하기

학생들은 이미 국어과에서 '소개하는 글쓰기'의 방법을 학습하였으나, 이를 반복적으로 써 보지 않았기 때문에 쓰기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학습하였는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소개하는 글을 잘 쓸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내용교과에서 '돌림쓰기'를 해 봄으로써 학생들은 다양한 쓰기 상황에서의 '소개하는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9) 이진희(2012)에 의하면 학생들에게 '내가 쓴 글을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는 친구(46.9%) > 선생님(11%) > 부모님(8.3%)순이었고, 그 이유는 내 글을 보고 놀리는 것 때문이었다. 이는 독자로서의 태도와 반응이 필자의 쓰기 불안 정도를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됨을 증명한다. '돌림쓰기'를 통해 나와 친구들의 쓰기의 과정을 동시에 비교하면서 예상독자 이외에 실제의 독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필자로서의 자세, 독자로서의 자세 또한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동이 아님에 흥미를 보였다.

2) 계획하기: 과제 해석, 독자 선정, 분량 선정, 역할 분담

교실 책상 구조를 모둠 활동이 용이하도록 바꾸고, 한 모둠 당 한 장씩의 활동지를 나눠준다. 첫 번째 활동지는 ‘계획하기’ 단계를 위한 것으로써 쓰기 활동 전에 모둠이 함께 ‘글을 쓰는 목적, 읽을 사람 및 글의 길이 정하기, 역할 분담’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쓰기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들이 왜 글을 쓰는지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상 독자와 글의 분량을 정해 봄으로써 쓰기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표 IV-2〉 돌림쓰기 활동 내용 - 계획하기

계획하기	
활동 과제	활동 내용
· 목적 설정 및 분석하기	- 글의 목적: 달라진 생활 모습을 소개하는 글쓰기
· 주제 설정하기	- 주제: 달라진 생활 모습을 소개하기
· 독자 설정 및 분석하기	- 독자: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사람
	- 분량: A4용지 한 장 이내

S1 - 달라진 의생활	S2 - 달라진 식생활
S3 - 달라진 주생활	S4 - 달라진 놀이생활

3) 내용 생성하기

위의 쓰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2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과 2단원에서 학생들은 소단원으로 ‘(1) 옛날 모습과 오늘날 모습, (2) 달라진 의식주, (3) 옛날과 오늘날 아이들의 놀이, (4) 이어져 온 조상들의 멋과 슬기’에 대해 학습하였으며 이렇게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하

고 있어야 글쓰기를 잘 할 수 있다. 즉, 쓰기 과정에서의 '내용 생성하기'가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의 '내용'이란 내용교과에서 학습한 '지식'을 뜻하며 이는 쓰기의 결과물을 통해 내용교과에서의 학습목표 성취도를 판단, 즉 평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모둠원들과 함께 '돌림쓰기'를 하게 되면 자신이 떠올리는 내용(지식의 양) 중에서 빠뜨리는 부분들을 채울 수 있고, 상호협력하며 단원의 성취 목표에 다다른 데에 유용함을 확인해 보고자 실제 수업에 적용해 보았다.

〈표 IV-3〉 돌림쓰기 활동 내용 - 내용 생성하기

내용 생성하기	
활동 과제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에 적절한 내용 발견·선정하기</li> <li>· 주제를 뒷받침할 소재 찾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한 내용 회상하여 꺼내기 (브레인스토밍) (달라진 의·식·주·놀이생활에 대해 학습한 내용 떠올리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분 내용 생성 후, 다음 친구에게 돌리기 (자신에게 다시 활동지가 돌아올 때까지 총 내용 생성 4회 반복)</li> <li>- 빠진 내용 추가 및 새로운 아이디어 얻기</li> </ul>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의 학생의 활동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표 IV-4〉 돌림쓰기 학생 활동 예시<sup>30)</sup> - 내용 생성하기

S1(이○호)-주제: 달라진 식생활

S1	-옛날의 식생활: 옛날에는 김치, 국, 밥, 콩, 간장, 된장, 굴비, 꿀 등을 먹었다. -달라진 오늘날의 식생활: 서양식 음식을 먹는다. / 피자, 햄버거, 카레, 다른 나라의 음식들을 먹는다.
S2	
S3	-식생활의 공통점: 요리한다. / 불을 사용한다.
S4	-요리하는 방법 ·옛날: 가마솥, 맷돌 사용 / 부엌과 마루가 구분되어 있다. / 여자는 주로 쪄그려 앉는다. /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지 않는다. ·오늘날: 밥솥 사용 / 남자도 요리를 할 수 있음 / 부엌과 마루가 붙어 있다. / 여자, 남자가 서서 요리한다.

위의 결과물을 확인해 보았을 때, S1 혼자서는 생각해 내지 못했던 내용(지식)을 S3, S4가 추가 생성해주었다. 이 활동지가 모둠 구성원을 돌아 다시 S1에게 돌아왔을 때, S1은 자신이 미처 생각해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회상하면서 내용교과 시간에 학습했던 달라진 식생활 관련 내용을 더 많이 떠올려 학습할 수 있었다. 이는 주어진 시간 내에 초등학교 중학년 학생이 쓰기의 과정에서 스스로 생각해내지 못하는 생각의 폭을 모둠 구성원들 간의 협동을 통하여 넓히는 상호적 상위인지의 활용의 예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S1을 중심 필자라고 보고 S3, S4를 S1의 점검하기를 돕는 타자라고 본다면, S1은 S3, S4가 추가 생성한 내용을 보고, 자신의 글에 덧붙일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은 점검(monitoring)을 통한 조정(regulation)을 구분하는 것으로 점검은 타인과 필자 자신이 모두 할 수 있는 활동이지만, 조정은 필자 자신만의 고유 영역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30) 학생들은 '활동지 2'에서 내용 생성하기 활동을 하였으며 대부분 생각그물, 또는 자유롭게 브레인 스토밍한 내용을 줄글로 써 내려갔다.

#### 4) 조직하기

〈표 IV-5〉 돌림쓰기 활동 내용 - 조직하기

조직하기	
활동 과제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발 짓기</li> <li>· 생각 그물 만들기</li> <li>· 열개 짜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각 그물 만들기 (생성한 내용을 큰 주제 -달라진 의·식·주·놀이생활-에 따라 정리하기)</li> <li>- 5분 조직하기 후, 다음 친구에게 돌리기</li> <li>- 조직 내용 점검 및 수정, 내용 추가하기</li> </ul>

〈표 IV-6〉 돌림쓰기 학생 활동 예시 - 조직하기

S1(이○호)-주제: 달라진 식생활

처음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할머니께 달라진 식생활을 설명해 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할머니께 달라진 식생활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S4)
가운데	옛날에는 부엌과 마루가 구분되어 있고 쪼그려 앉아 요리를 하고 가마솥이나 맷돌을 사용했다. 오늘날에는 가마솥 대신 밥솥을 사용하고 맷돌 대신 믹서를 사용한다. 그리고 부엌과 마루가 붙어있고 서서 요리한다. 옛날에는 부엌에 남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오늘은 남녀 누구나 들어간다. 공통점은 요리를 할 때 불을 사용합니다. 옛날에 식생활은 김치, 국, 밥, 콩, 간장, 된장, 굴비, 굴 등을 먹습니다.(S1) 오늘날에는 주로 서양식 음식인 카레, 피자 햄버거 등을 주로 먹어요.(S4)
끝	할머니, 이제 잘 아시겠어요? 나이가 많아도 오래오래 사세요!(S2)

‘활동지 2-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지 3-조직하기’ 활동을 할 때, 교사는 조직하기의 방법으로 다발 짓기, 생각 그물 만들기, 열개 짜기 등의 방법이 있음을 안내하였다. 그러나 아직 학생들이 여러 전략을 적용해 보지 못했기에 대부분의 모둠에서 조직하기 활동을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에 교사는 글을 쓰기 전 '처음-가운데-끝'으로 구분하여 각 부분에 어울리는 내용을 간단히 써 보는 열개 짜기의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예시를 보여주었더니 학생들은 이를 모방하여 조직하기 활동을 하였다.

S1은 주제에 맞게 가장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먼저 가운데 부분에 정리하였고, 이를 다른 학생들이 돌려가면서 추가적으로 처음-가운데-끝 형식에 어울릴만한 내용들을 간단히 적었다. 이 때 학생들이 서로 협의하면서 예상 독자와 글을 쓰는 목적을 고려하였고, 글의 장르적 특성 즉, '소개하는 글'의 특성을 인식하며 조직하기 활동을 해 나갔다.

#### 다. 쓰기 중(writing) 단계

##### 1) 표현하기 및 교정하기

〈표 IV-7〉 돌림쓰기 활동 내용 - 표현 및 교정하기

표현하기	
활동 과제	활동 내용
· 초고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한 내용을 바탕으로 초고쓰기</li> <li>- 글의 장르(소개하는 편지글) 고려하기</li> <li>- 10분 초고쓰기 후, 다음 친구에게 돌리기</li> <li>- 초고 점검 및 마무리하기</li> </ul>
교정하기	
활동 과제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의 내용면</li> <li>· 글의 형식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한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지 점검·보충·교정하기</li> <li>- 맞춤법, 글씨체, 문단 형식 등 점검·교정하기</li> </ul>

〈표 IV-8〉 돌림쓰기 학생 활동 예시 - 표현 및 교정하기

S1(이○호)-주제: 달라진 식생활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 ○호예요. 새롭게 바뀐 식생활에 대해 알고 있으  
시나 해서, 소개해 드리려고요.

옛날에는 부엌과 마루가 구분되어 있고 쪼그려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리  
고 가마솥과 맷돌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부엌에는 여자만 들어갔어요. 오  
늘날에는 부엌과 마루가 붙어있고 서서 요리를 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가  
마솥 대신 전기밥솥, 맷돌 대신 믹서를 사용해요. 부엌에는 남자도 들어가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외국 음식이 많이 들어왔어요. 서양 음식인 카레, 피  
자, 햄버거, 치킨, 우동, 라면 등을 수입하여 가끔씩 먹기도 해요. 옛날에는  
김치, 국, 쌀밥, 굴, 된장, 찌개, 된장, 굴비, 간장(~~짜여먹음~~), 꿀 등을 먹었어  
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옛날 음식을 먹기도 해요. 그리고 요리할 때의 공통  
점은 요리를 할 때 불을 사용하는 것이예요. 그리고 명절에 먹는 음식도 있  
어요. 설날 때는 떡국을 먹고, 여름철에는 삼계탕, 추석에는 송편을, 동지에  
는 팔죽을 먹었어요. 잘 아셨죠? 안녕히 계세요.  
이런 음식을 세시음식이라고 해요.

2014년 11월 □□일 ○호 올림

모둠의 각 학생들은 자신의 주제에 따라 조직하기 활동을 바탕으로 글을 썼으  
며 S1 또한 자신의 '활동지 3-조직하기'를 바탕으로 실제 글을 썼다. 각자의 표현  
하기 활동이 끝난 뒤, 서로의 '활동지 4-표현 및 교정하기'를 돌려 읽으면서 고쳐  
쓰기의 과정을 거치게 하였다. 학생들은 주제에 대하여 내용이 알맞게 들어갔는  
지, 틀린 내용이나 상관없는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였으며 만약 있다면 수정하거  
나 뺄 수 있도록 교정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위에 예시에서 나타나듯이 '이런 음  
식을 세시음식이라고 해요.'라는 문장을 추가하면서 쓰기의 전(前) 과정인 '내용  
생성하기'에서 빠뜨린 내용(지식)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이 때 필자 S1은 다른 학생이 점검(monitoring)해 준 새로운 지식을 스스로의  
조정하기(regulation)를 통해 글쓰기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내용 생  
성하기'와 '조직하기' 활동으로 되돌아가 수정·보완함으로써 과정 중심 쓰기의 회  
귀성을 나타내었다.



〈표 IV-9〉 돌림쓰기 학생 활동 예시 - 내용 생성하기 ’

S1(이○호)-주제: 달라진 식생활

S1	-옛날의 식생활: 옛날에는 김치, 국, 밥, 콩, 간장, 된장, 굴비, 굴 등을 먹었다. -달라진 오늘날의 식생활: 서양식 음식을 먹는다. / 피자, 햄버거, 카레, 다른 나라의 음식들을 먹는다. -('교정하기' 활동 후 추가) 세시음식: 설날(떡국), 여름(삼계탕), 추석(송편), 동지(팥죽)
S2	
S3	(생략)
S4	

〈표 IV-10〉 돌림쓰기 학생 활동 예시 - 조직하기 ’

S1(이○호)-주제: 달라진 식생활

처음	(생략)
가운데	옛날에는 부엌과 마루가 구분되어 있고 쪄그려 앉아 요리를 하고 가마솥이나 맷돌을 사용했다. 오늘날에는 가마솥 대신 밥솥을 사용하고 맷돌 대신 믹서를 사용한다. 그리고 부엌과 마루가 붙어있고 서서 요리한다. 옛날에는 부엌에 남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오늘은 남녀 누구나 들어간다. 공통점은 요리를 할 때 불을 사용합니다. 옛날에 식생활은 김치, 국, 밥, 콩, 간장, 된장, 굴비, 굴 등을 먹습니다.(S1) 오늘날에는 주로 서양식 음식인 카레, 피자 햄버거 등을 주로 먹어요.(S4) ('교정하기' 활동 후 추가) 또 세시음식도 있는데, 설날에 먹는 떡국, 여름철에 먹는 삼계탕, 추서에 먹는 송편과 동지에 먹는 팥죽이에요.
끝	(생략)

이를 통해 과정 중심 쓰기 지도의 한계점으로써 앞서 언급한 쓰기 과정의 형식화, 즉 쓰기 과정의 형식화와 상호작용의 형식화를 극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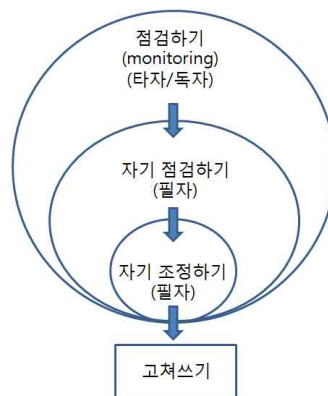
다. 쓰기의 과정을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쉬웠으나 교정하는 과정 중에서도 앞서 빠뜨린 내용을 추가하면서 쓰기의 과정이 일련화, 선조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귀적임을 경험을 통해 습득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학생의 글을 귀로 듣거나 눈으로 한 번 읽어보는 것으로 형식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에 비해, 이미 내용 생성하기와 조직하기 단계에 함께했었기 때문에 마치 자신의 글인 것처럼 꼼꼼히 읽고 교정 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 라. 쓰기 후(postwriting) 단계

### 1) 공유하기(sharing)

각 모듈에서 ‘활동지 4-표현 및 교정하기’ 활동이 끝나면 다시 학생들은 마지막으로 ‘활동지 5-작품화하기(고쳐쓰기)’를 통해 완성된 글을 마무리한다. 한 주제에 대하여 네 번 이상의 반복을 통해 온전한 글을 마무리하면서 내용교과에서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고, 쓰기에는 과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쓰기의 과정마다 모듈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점검해 준 내용을 받아 들고 필자 스스로 다시 점검하게 되며, 그 안에서 실제로 글에 반영할지 말지는 조정하기를 통해 선택하게 된다.



[그림 IV-2] ‘돌림쓰기’에서의 ‘고쳐쓰기’ 절차

사실 ‘돌림쓰기’에서는 이러한 ‘고쳐쓰기’ 활동은 쓰기의 각 과정마다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하기’ 후 이루어지는 ‘교정하기’ 활동이 곧 독자(타자)에 의한 ‘점검하기’이며, 이에 대한 ‘자기 점검 및 조정하기’의 결과로서의 ‘고쳐쓰기’를 글의 완성 단계로 보았다.

완성된 결과물은 시간 여건에 따라 각 주제별로 발표하도록 하고, 교실에 게시하여 같은 주제에 대하여 다른 모둠에서는 어떤 글이 완성되었는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2. 내용교과 적용 ‘돌림쓰기’ 지도의 결과

### 가. ‘돌림쓰기’ 후 학생들의 쓰기 활동 분석

#### 1) 분석 방법



‘돌림쓰기’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하여 다른 학급의 쓰기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돌림쓰기’를 한 학급을 실험 집단, ‘돌림쓰기’를 하지 않은 학급을 통제 집단으로 보았을 때, 학습 절차는 <표 IV-11>과 같다.

<표 IV-11>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학습 절차

실험 집단(돌림쓰기)	통제 집단(개별쓰기)
학습 목표 제시	학습 목표 제시
↓	↓
교사 안내	교사 안내
↓	↓
모둠별 ‘돌림쓰기’	개별쓰기
↓	↓
공유하기	공유하기

앞과 같이 각 학급에서 쓰기를 진행하였을 때, ‘돌림쓰기’를 한 학급의 경우에는 ‘돌림쓰기’의 절차에 따라 쓰기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 혼자가 아니라 모둠 구성원들과 함께 협동하여 글을 쓰면서 서로 상위인지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기대되었다.

반면 통제 집단에서는 글의 주제와 상황만 주어졌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년 학생들의 보다 실제적인 쓰기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이미 학습한 내용이 잘 습득되었다는 전제 하에 기대되는 상황은 학생들이 스스로 쓰기의 과정을 따라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며 표현하고, 교정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각 단계를 되돌아오면서 쓰기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통제 집단의 학생의 글 중 실험 집단의 학생과 같은 주제를 골라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IV-12〉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쓰기 활동 분석 방법

실험 집단 vs 통제 집단	
분석 대상	동일 수준의 학생 <sup>31)</sup>
분석 방법	1차 분석) 내용면 vs 형식면 분석 2차 분석) ‘돌림쓰기’ 평가 기준표에 따른 분석 (쓰기 영역 vs 내용교과 영역)

31) 통제 집단 학급 담임의 도움을 받아 예시 분석글의 학생은 실험 집단 학급의 학생과 동일 수준으로 정하였다. 학생의 수준을 정하는 데에는 사전 검사 실시 등의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평가에서의 국어·사회 교과의 점수(上), 수행평가 결과(上), 글쓰기 능력(中上) 수준의 학생들로 선정하였다.

2) '돌림쓰기'를 하지 않은 학생들의 쓰기 활동(개별쓰기)

〈표 IV-13〉 '돌림쓰기'를 하지 않은 학생의 쓰기 결과 예시

주제: 달라진 식생활

오△준

저는 달라지는 식생활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옛날과 오늘날에 음식을 만들 때 불을 사용하는 것은 똑같지만 옛날에는 불을 사용할 때 나무로 불을 짚었고 오늘날에는 가스레인을 사용합니다. 또 옛날에는 밥을 지을 때 가마솥을 사용했고 오늘날에는 밥솥을 사용합니다. 음식은 옛날에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고 요즘은 스파게티나 피자 같이 다른 나라의 음식이나 가공식품들도 먹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옛날에는 부엌이 거실과 구분되어 있지만 오늘날에는 거실과 부엌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많다. 왜 그럴까? 이유는 옛날 부엌을 장작으로 불을 지펴서 사용해서 연기가 나와서 거실과 분리되어 있는 거고 오늘날에는 가스레인을 사용해서 연기가 나지 않아 거실과 같이 붙어 있는 것이다.

위의 글을 보고 쓰기의 결과를 내용면과 형식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표 IV-14〉 '돌림쓰기'를 하지 않은 학생의 쓰기 결과 분석

내용면	형식면
· 주제 관련 내용(지식): 약 6가지	· 예상 독자: 나타나지 않음
·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 2가지 (부엌과 거실의 구조와 관련된 내용은 글의 주제에서 벗어났으며, 교과서 내용과 다름)	· 글을 쓰는 목적: 나타나지 않음 · '처음-가운데-끝'의 구조가 드러나지 않음 · 어미가 통일되지 않음

쓰기의 과정을 관찰해 본 결과, 개별쓰기를 하는 학생들은 모두 다 쓰기의 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제를 받은 뒤 바로 글쓰기를 시작하였다. 물론 이 학생들도 국어 수업시간에는 교과서에 제시된 쓰기의 과정을 따라 쓰기 활동을 해 보

았으나, 이 전략이 국어 시간이 아닌 다른 쓰기 상황에서 실제 적용 가능하게 학습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혼자 쓰기 활동을 함으로써 내용교과에서 학습한 내용(지식)을 전부 정리하지도 못했고,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잘못된 내용을 쓰기도 했다. 이는 일반적인 초등학교 중학년 학생들이 자신들이 써 내려가는 내용을 쓰는 과정마다 다시 한번 점검하거나, 다 쓰고 나서도 되돌아보면서 점검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다.



3) '돌림쓰기'를 한 학생들의 쓰기 활동

〈표 IV-15〉 '돌림쓰기'를 한 학생의 쓰기 결과 예시

주제: 달라진 식생활

이○호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 ○호예요. 새롭게 바뀐 식생활에 대해 알고 있으시나 해서 소개해 드리려고요.

옛날에는 부엌과 마루가 구분되어 있었고 쪄그러서 밥을 지었어요. 나무를 뿔감으로 사용했고 가마솥과 맷돌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부엌에는 여자만 들어갔어요.

오늘날에는 서서 밥을 짓고 마루와 부엌이 붙어 있어요. 가마솥 대신 전기 밥솥, 맷돌 대신 믹서기를 사용해요. 그리고 부엌에 남자도 들어가죠.

그리고 옛날에는 국, 밥, 생선, 간장(찍어먹음), 된장, 찌개, 굴, 굴, 김치 등을 먹었어요. 오늘날에는 서양식 음식이 들어오면서 카레, 피자, 치킨, 우동, 라면, 햄버거 등을 먹어요. 그러면서 옛날 음식들도 먹기도 해요.

요리할 때의 공통점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불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든다는 점이에요.

또 세시음식도 있는데, 세시음식에는 설날에 먹는 떡국과 만둣국, 여름철에 먹는 삼계탕, 추석에 먹는 송편과 동지에 먹는 팔죽도 포함돼요.


이제 잘 아셨죠? 오래오래 기억해 두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안녕히 계세요.

2014년 11월 □□일 ○호 올림.

〈표 IV-16〉 ‘돌림쓰기’를 한 학생의 쓰기 결과 분석

내용면	형식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관련 내용(지식): 11가지 이상</li> <li>·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상 독자: 할머니</li> <li>· 글을 쓰는 목적: 새롭게 바뀐 식생활에 대해 소개하려고</li> <li>· ‘처음-가운데-끝’의 구조 및 소개하는 글의 특징이 드러남</li> <li>· 어미가 통일됨</li> </ul>

‘돌림쓰기’를 한 학급의 학생의 완성된 글에서는 ‘소개하는 글’의 특징이 잘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 또한 풍부하였고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현 및 교정하기’ 단계에서 구성원들이 고쳤으면 좋겠다고 지적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관계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추가할 내용은 덧붙여서 글의 구조에 적합하게 글을 완성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UNIVERSITY LIBRARY

3) ‘돌림쓰기’ 지도 결과 비교·분석

학생들은 이미 국어과 수업에서 쓰기의 장르 중 ‘소개하는 글쓰기’를 경험해 보았고, 그 전략을 사회과 수업에 2차적으로 적용하여 쓰기의 과정을 중복 경험함으로써 쓰기 기능이 자동화될 수 있음을 관찰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반대로 국어과에서 한 차시, 또는 두 차시에 걸쳐서만 장르별 쓰기의 과정을 경험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상황과 주제에서 쓰기의 전략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 ‘돌림쓰기’를 지도하였을 때와, 지도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 기준을 정하여 비교해 보았다. 평가 기준은 ‘돌림쓰기’의 목적인 과정 중심 쓰기의 학습 및 적용, 내용교과의 학습 내용 습득 여부에 중점을 맞추어 설정하였다.



〈표 IV-17〉 ‘돌림쓰기’ 평가 기준표

(영역 항목별 각 5점<sup>32)</sup>)

쓰기의 과정	평가 기준	
	쓰기 영역	내용교과 영역
계획하기	1. 글을 쓰는 목적이 나타났는가? 2. 읽을 독자를 생각하였는가? 3. 글의 주제를 생각하였는가? 4. 어떤 형태의 글을 쓸 것인지 생각하였는가?	1. 대단원과 소단원 사이의 연계성을 이해하였는가? 2. 학습한 내용을 주제로 글을 쓰게 됨을 이해하였는가?
내용 생성하기	1. 아이디어는 풍부한가? 2. 주제와 관련 있는 아이디어를 생성하였는가?	1. 내용교과에서 학습한 내용이 다 생성되었는가?
조직하기	1. 생성한 아이디어를 기초로 조직하였는가? 2. 주제에 맞게 범주화 하였는가? 3. 글을 쓸 순서를 생각하였는가? 4. 글의 구조를 인식하고 내용을 조직하였는가?	1. 대단원과 소단원, 각 차시별 학습 내용이 연계성 있게 조직되었는가?
표현하기	1. 조직한 내용을 바탕으로 썼는가? 2. 글의 형식에 맞는가?	1. 학습한 내용이 잘 드러나게 표현되었는가?
고쳐쓰기 33)	1. 교정해야 할 내용을 잘 찾아 교정하였는가? 2. 글의 목적과 장르, 형식에 부합하게 교정하였는가?	1. 학습한 내용과 다른 오류 내용은 없는가?

32) 쓰기의 과정마다의 중요도는 연구자의 연구 목표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본 연구의 비교·분석에서는 쓰기의 모든 과정을 골고루 중요하게 여기고, 보다 쉬운 점수화를 위하여 평가 기준표의 각 영역 항목별 5점을 부여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정하였다.

33) 본 연구에서는 쓰기의 전 과정을 중시하여 ‘돌림쓰기’를 고안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기에 ‘교정하기’와 ‘고쳐쓰기’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그러나 ‘돌림쓰기’에서 강조하는 점검하기, 조정하기, 쓰기 과정의 회귀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교정하기’ 또는 ‘고쳐쓰기’가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심유나(2012, pp.1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고쳐쓰기’를 ‘교정하기’의 상위 개념으로 보고, 형식적, 인지적, 사회적 관점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돌림쓰기’ 평가 기준표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쓰기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표> 관점에 따른 고쳐쓰기의 의미

관점	고쳐쓰기의 의미
형식적 관점 (formal view)	<p>객관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주로 학습자가 작성해 높은 쓰기 결과물에 집중하는 ‘결과 중심 쓰기’.</p> <p>쓰기의 과정은 ‘쓰기 전-쓰기 중-쓰기 후’의 선조적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고쳐쓰기 활동은 쓰기 후 단계에서 일어난다.</p> <p>고쳐쓰기는 교정의 의미로서 오류가 있는 글에 한하여 이루어지며 주로 철자나 단어, 문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맞춤법이나 수사학적 오류를 발견하고 바로잡는 것에 의미를 둔다.</p> <p>‘교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식이며 필자는 지식을 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교사에게 의존함.</p>
인지적 관점 (cognitive view)	<p>쓰기는 사고 행위이며, 필자는 글을 써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인지 과정을 점검하고 자신을 통제해 감.</p> <p>쓰기의 회귀성을 강조한 인지적 관점은 ‘과정 중심 쓰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p> <p>고쳐쓰기는 단순히 맞춤법이나 수사학적 오류를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서 필자가 자신의 목적과 글의 의미를 일치시켜 가는 것.</p> <p>자신의 쓰기 과정을 되돌아보고 반성적 사고를 통해 쓰기의 전 과정을 조정하여 고쳐 나감.</p> <p>학습의 주체는 학생이며 쓰기를 하는 동안 쓰기에 변화를 가지고 오는 계속적인 고치기 활동을 함.</p>
사회적 관점 (social view)	<p>쓰기라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과정이며, 독자와 필자가 함께 글의 의미를 구성해 간다고 강조함.</p> <p>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의미 협상의 과정을 중요시하며 교사와의 협의나 학습자간의 협의를 강조함. (‘대화 중심 쓰기’와 관련)</p> <p>고쳐쓰기는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사회적 행위’로 파악.</p> <p>작가의 표현 의도와 독자의 이해가 일치되지 않을 때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활동이 고쳐쓰기</p> <p>고쳐쓰기는 가변적이고 상황 의존적이며 쓰기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짐.</p> <p>필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쳐쓰기를 하는 인지적 관점과는 차이가 있음.</p>

위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돌림쓰기’에서의 ‘고쳐쓰기’ 활동은 사회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기 점검하기’, ‘조정하기’ 활동을 통한 ‘고쳐쓰기’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돌림쓰기’를 통하여 잘 학습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표 IV-18〉 ‘돌림쓰기’ 지도 유무에 따른 결과 비교 (영역 항목별 각 5점)

(돌림쓰기: 이○호 학생의 글 / 개별쓰기: 오△준 학생의 글)

	쓰기 영역	돌림 쓰기	개별 쓰기	내용교과 영역	돌림 쓰기	개별 쓰기
계획 하기	1. 글을 쓰는 목적이 나 타났는가?	5	0	1. 대단원과 소단원 사이 의 연계성을 이해하 였는가? 2. 학습한 내용을 주제 로 글을 쓰게 됨을 이해하였는가?	5	5
	2. 읽을 독자를 생각하 였는가?	5	0			
	3. 글의 주제를 생각하 였는가?	5	5			
	4. 어떤 형태의 글을 쓸 것인지 생각하였 는가?	5	2			
내용 생성 하기	1. 아이디어는 풍부한가?	5	2	1. 내용교과에서 학습 한 내용이 다 생성 되었는가?	5	2
	2. 주제와 관련 있는 아이디어를 생성하 였는가?	5	3			
조직 하기	1. 생성한 아이디어를 기 초로 조직하였는가?	5	0	1. 대단원과 소단원, 각 차시별 학습 내 용이 연계성 있게 조직되었는가?	3	0
	2. 주제에 맞게 범주화 하였는가?	2	0			
	3. 글을 쓸 순서를 생각 하였는가?	4	0			
	4. 글의 구조를 인식하 고 내용을 조직하였 는가?	5	0			
표현 하기	1. 조직한 내용을 바탕으 로 썼는가?	5	0	1. 학습한 내용이 잘 드러나게 표현되었 는가?	5	2
	2. 글의 형식에 맞는가?	5	2			
고쳐 쓰기	1. 교정해야 할 내용을 잘 찾아 교정하였는가?	5	0	1. 학습한 내용과 다른 오류 내용은 없는가?	5	1
	2. 글의 목적과 장르, 형식에 부합하게 교 정하였는가?	5	0			
합계		66	14		28	15

‘돌림쓰기’ 지도 유무에 따른 학생들의 쓰기 결과물을 본 연구자가 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분석해 보았다.<sup>34)</sup> 평가자의 시선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돌림쓰기’를 했을 경우의 글이 그렇지 않았을 때의 글보다 쓰기 영역 및 내용교과 영역에서의 완성도가 더 높음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학년 수준과 쓰기의 목적을 고려하여 평가 기준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논외로 쓰기의 형식면, 즉 학생들의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 어미의 통일 등을 점검해 보았을 때에도 ‘돌림쓰기’를 지도했을 경우에는 오류가 평균 한두 건 정도인데 비해, ‘돌림쓰기’를 지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법적인 오류가 약 열 배에 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각 모둠이 이질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서로의 글을 돌려 읽어보면서 친구의 글쓰기에서 문법적인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고칠 수 있도록 표시해 주었고, 해당 학생은 이를 인정하고 다시 쓸 때에는 바르게 쓰기 때문이었다.

‘돌림쓰기’를 내용교과에 적용하였을 때, 쓰기 과정을 통하여 어떤 학생이 내용(지식)을 잘 학습하였는지, 어떤 학생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교사는 관찰 및 활동지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모둠의 학생들은 경쟁이 아닌 협동을 통해 내용(지식)을 채워 한 편의 글을 완성해 나감으로써 쓰기 상황에 대한 부담은 약화되고 흥미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과정 중심 쓰기는 쓰기의 과정만 중시하다 ‘결과’를 경시할 우려가 있다고 하나, ‘돌림쓰기’를 적용했을 때에 쓰기의 과정을 세세히 거치면서도 질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의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동 작문의 쓰기 영역 및 주제 확대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

34) 본 연구자가 고안한 평가 기준표를 가지고 적은 수의 결과물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객관성과 타당성을 논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러므로 추후에 평가 기준표를 수정·보완하여 다수의 결과물을 가지고 더 많은 평가자들이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돌림쓰기’ 지도의 효과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 나. ‘돌림쓰기’후 학생들의 인식 조사

활동을 관찰한 결과 학생들의 반응은 첫째, 쓰기 상황을 즐겁게 받아들였다. 쓰기의 결과, 분량, 평가 등에 대한 부담과 불안보다는 일종의 모둠활동으로 쓰기의 과정에 대한 흥미가 높았다. 둘째, 쓰기의 과정을 이해했다. 전에는 교과서에 나타난 조직하기 활동을 하는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며 “바로 쓰면 안돼요?”라고 묻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돌림쓰기를 통해 ‘내용 생성하기’와 ‘조직하기’ 단계를 거치면 ‘표현하기’ 단계가 훨씬 수월해짐을 경험을 통해 습득하였다. 셋째, 쓰기의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였다. 각자의 아이디어의 부족함을 친구의 점검을 통해 인지하였고 그 때마다 자기 조정하기를 통해 내용을 선택, 수정하면서 상위인지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번 지나가면 끝인 형식적인 쓰기의 과정이 아니라 되돌아갈 수 있고(회귀성), 계속 점검 및 조정하는(상위인지의 활용) 모습을 보임으로써 쓰기의 결과물의 수준 또한 향상되었다.

〈표 IV-19〉 쓰기에 대한 학생들의 사후 인식 조사



(N=29)

내용		응답				
		5	4	3	2	1
‘돌림쓰기’를 하고 나니 쓰기가 재미있었다.		20	5	4		
‘돌림쓰기’를 하고 나니 쓰기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23	2	4		
‘돌림쓰기’를 하고 나니 사회 2단원의 내용 정리가 잘 되었다.		23	2	4		
‘돌림쓰기’ 후 느낀 점	모둠 친구들과 역할을 나누어 글을 쓰니 친구가 어떻게 쓰는지 확인 할 수 있었고, 재미있었다. 내용이 빠진 부분을 채울 수 있어서 좋았다. 다른 사람이 내 글을 계속 읽어주고 확인해주니까 자신감이 생겼다. 복습을 아주 많이 한 것 같은 기분이다.					

(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이다, 2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담임교사가 '돌림쓰기'에 대해 설명하고 지도한 후, 학생들의 쓰기 과정을 관찰하여 얻은 결과와 쓰기 활동 결과물로 얻은 내용 이외에도, 다시 위와 같이 인식 조사를 해 보았다. 학생들은 '돌림쓰기' 활동 후 쓰기에 대한 선호도가 약 86%로 상승하였고, 과정 중심 쓰기 및 내용교과의 학습 내용 이해도 또한 약 86%를 나타내며 큰 향상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서술형 응답에서도 모둠 활동, 즉 협동 학습에 대한 만족도가 큼을 나타내어 초등학교 중학년 학생들의 특성 상 협동 학습을 통한 쓰기 지도가 매우 효율적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 V. 결론

본고에서는 초등학교 중학년 학생들이 쓰기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다양한 주제에 쓰기 상황을 접목시켜 내용교과에서의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만한 협동 쓰기 지도 방안으로서 ‘돌림쓰기’를 구안하여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과정 중심 쓰기 연구, 협동 작문 연구, 내용교과 쓰기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고, II장에서는 협동 작문의 개념과 유형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를 재정리하였다. 이는 본고에서 다룬 ‘돌림쓰기’가 협동 학습, 특히 학생들이 계획하기부터 협의하여 이루어지는 협동 작문에 그 기본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협동 작문이란, 협동 학습이라는 방법을 통해 학습자가 작문의 본질과 원리 즉 이론을 이해하고, 작문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며, 작문에 대해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돌림쓰기’의 개념을 정리하면, 한 모둠의 모둠원들이 쓰기의 각 과정마다 서로 활동한 내용을 돌려 읽고 점검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의 상위인지 역할을 해주는 쓰기 전략이다. ‘돌림쓰기’는 기존의 과정 중심 쓰기 교육에서 여러 가지 한계점이 나타나는 점, 협동 학습의 효용성, 내용교과 쓰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안하게 되었다.

III장에서는 ‘돌림쓰기’의 모형을 탐색하고 지도 원리를 제시하였다. ‘돌림쓰기’는 모둠원들이 협의하여 전체 글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난 뒤, 각각의 주제에 대하여 내용 생성하기, 조직하기, 표현하기, 교정하기, 작품화하기의 과정을 거칠 때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서로의 쓰기 과정을 돌려보면서 확인하고 점검함으로써 쓰기의 과정을 진행해 나가는 방법이다.

IV장에서는 III장의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학생들에게 ‘돌림쓰기’를 활용하여 쓰기 활동을 지도해 본 결과를 정리하였다. 쓰기 활동 전, 학생들의 실태 및 인식 조사 후에 지도의 단계를 쓰기 전, 중, 후로 나누었다. 같은 쓰기 주제를 제시하였을 때 ‘돌림쓰기’를 지도한 학급과 지도하지 않은 학급의 결과물을 비교·분석해 보았으며 이를 통해 쓰기 교육에의 시사점을 세 가지로 추출하였다.

첫째, 학생들이 쓰기의 과정을 인식하고, 즐겁게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돌림쓰기’를 통해 자신의 주제, 그리고 모둠원의 주제에 대하여 소개하는 글쓰기를 하면서 ‘계획하기 → 내용 생성하기 → 조직하기 → 표현하기 → 고쳐쓰기’로 진행되

는 쓰기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반복하였다. 비단 국어 수업 시간뿐만이 아니라 글씨를 쓸 때에는 과정이 있으며, 그 과정이 회귀적임을 학생들은 이해하고 학습하게 되었다. 또한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서, 또는 자신의 글을 누가 읽게 될지 몰라서 겪게 되는 쓰기 불안을 극복하는 데에 '돌림쓰기'가 효과적임을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과정 중심 쓰기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과정의 형식화, 상호작용의 형식화를 극복하고, 학생들이 서로의 상위인지 역할을 하며 쓰기의 과정마다 점검하기가 이루어져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쓰기 상황이 조성되었다. 실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림쓰기'를 적용해 본 결과, 학생들은 쓰기의 기능면에서 과정을 이해하고, 또래 친구들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주제에 대해 자신들이 능동적으로 의미구성을 해 나가는 쓰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쓰기의 태도 면에서 쓰기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졌고, 쓰기 자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쓰기의 주제를 내용교과의 학습 주제로 선정하여 '학습을 위한 쓰기(writing to learn)'로서의 쓰기 영역을 확대하였다. 학생들의 쓰기 결과물을 확인해 본 결과,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는 면에 있어서 내용교과의 성취 수준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도달하여 훨씬 유의미한 결과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내용교과 수업을 통해 학습하여야 할 교과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기억해내고 정리하여 조직하고 다시 글로 표현함으로써 쓰기 능력 향상은 물론 교과 학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쓰기 능력의 중요성과 쓰기가 지닌 다양한 학습 기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과정에는 쓰기 능력의 신장이나 쓰기의 활용 면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개선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돌림쓰기'의 적합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학년별, 교과별, 단원별 특성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현장 적용을 통한 검증과 보완이 필요하므로 추후에 이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14). 『초등학교 교과서(국어, 3~4학년군 ①, ③)』. 미래엔주식회사.
- 교육부. (2014).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국어, 3~4학년군 ①, ③)』. 미래엔주식회사.
- 김미옥. (2007). “문단쓰기 지도를 통한 글쓰기 지도방안 연구 -설명문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동철. (2012). “장르 중심 접근에 기반한 내용교과 쓰기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나요경. (2009). “역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역사 글쓰기 수업의 실제 -고구려 고분벽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미정. (2005). “내용교과독서가 교과학습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영민. (2003). 『과정 중심 비평문 쓰기』. 교학사.
- 박혜경. (2009). “범교과적 쓰기 과제 개발 연구 -사회와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송의련. (2006). “쓰기 전(煎) 과정 전략 지도가 쓰기 능력 수준에 미치는 효과”.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헌재 외. (2005). 『초등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박이정.
- 심유나. (2012). “고쳐쓰기에 대한 초등 교사와 초등학생의 인식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택환. (2007). “협동 작문이 쓰기 능력과 쓰기 태도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경아. (2009). “중등 교육과정의 쓰기 협력학습 지도 방안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성영. (2000). “글쓰기 능력 발달 단계 연구 : 초등학생의 텍스트 구성 능력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26집.
- 이재승. (2002).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 이정호. (2011). “범교과적 쓰기를 활용한 내용교과 문식성 신장 방안 연구”. 서

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주선. (2005). “협상 전략을 통한 대화 중심 쓰기 지도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주섭. (1998). “범교과적 쓰기 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진희. (2012). “초등학생 쓰기 불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제응. (2000). “디더쓰기’를 활용한 쓰기 교수·학습 방법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제응. (2008a). 해석을 통한 필자의 상승적 의미 구성 교육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전제응. (2008b). 현행 쓰기 교육의 한계 양상과 극복 방안. <초등 프로슈머 수업 전문가 과정 연수 자료>. 서울시교육연수원.
- 차지연. (2001). “협동학습을 통한 쓰기 지도 방안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현섭 외. (1996). 『국어교육학 개론』. 삼지원.
- 최현섭·박태호·이정숙·이수진 공저. (2003). 『자기주도 쓰기 학습을 위한 과정 중심의 쓰기 워크숍』. 역락.
- 한송이. (2005). “쓰기가 내용교과 학습능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 연구-통합적 학습일지의 적용을 바탕으로”.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황미향. (2007). 과정 중심 쓰기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 123. 서울: 한국어교육학회.

# A B S T R A C T

## **Study of Method of Instruction of Writing using ‘Writing by Turns’**

**Yoon, Ji-Hye**

**Major in Elementary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Jeon, Je-Eung**



This study aims to propose ‘writing by turns’ as a method of cooperative instruction of writing that would help middle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learn the processes of writing efficiently, link the situations of writing to various topics and acquire the knowledge of content subjects.

‘Writing by turns’ refers to a writing strategy in which a group of members reads and checks the contents of activities by turns in each writing process, each plays a role of meta-cognition. Through ‘writing by turns,’ learners would learn the processes of writing, feel the necessity and efficacy of the use of meta-cognition and maximize ‘checking’ that occurs in the processes of writing. This study devises such a method of instruction of ‘writing by turns,’ centering around the application of content subjects and attempts to apply and instruct it for two writing situations of ‘learning to write’ and ‘writing to learn.’ By applying the writing strategy students have learned in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to learning of content

subjects, they can utilize the writing strategy actively, and there will b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cquisition of knowledge in the content subjects.

Chapter II looks into collaborative writing comprehensively and sums up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writing by turns.' Also, it finds the necessity of 'writing by turns' broadly from three reasons, that is, the limitation of process-based writing, the efficacy of collaborative writing and the necessity of writing in the content subjects.

Chapter III designs 'writing by turns' applicable to content subjects based on the contents into which Chapter II has looked and explores its model. As the basic principles of instruc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validity of this model, first, that of the usefulness of iterative learning and second, that of harmonization, are exemplified.

Chapter IV instructs 'writing by turns,' applying to content subjects: Korean (B) in the third and fourth grade cluster according to the 2009 revised curriculum and Social Studies in the second semester of the third grade. It is actually applied to one third-grade class of an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the downtown Jeju. A writing assignment on the same topic is suggested to another class, with which a writing situation is prepared without any instruction of 'writing by turns.'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each other.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writing educ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ents can recognize and participate in the processes of writing pleasantly that through 'writing by turns.' Especially, the middle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overcome their anxiety about writing regarding the formation of contents and expected readers through the processes of writing together with the members of the group and learn the processes of writing effectively through repeated activities.

Second, the students overcome the formalization of the process and interaction, which is pointed out as critical points of process-based writing, play a

meta-cognitive role to each other and check each process of writing, so that a writing situation in which they attach importance to ‘quality’ rather than ‘quantity’ is created.

Third, this study selects writing topics as the topics of learning in the content subjects, expanding the writing section as ‘writing to learn.’ It is found that instead of simply memorizing knowledge in the curriculum to learn through the classes of the content subjects, but recalling, arranging, organizing and expressing the knowledge in writing helps them improve writing skills and the abilities of learning the curriculum.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writing skills and the various learning functions of writing, there is insufficient emphasis on it, so it is the time that continuous improvement and research are necessary in terms of the improvement of writing skills and the use of writing in the current curriculum.

Regarding the appropriateness or effectiveness of the ‘writing by turns’ developed in this study, as it is necessary to verify and supplement it through on-the-spot application, it is suggested that a study will be conducted in the futur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rade, subject and unit, and situations of learning comprehensively.

Key words: Process-based writing, Collaborative writing, Integrated writing of content subjects, Meta-cognition, checking

## 부 록

[부록 1] '돌림쓰기' 활동지

[부록 2] '돌림쓰기'를 하지 않은 학생들의 쓰기 활동 결과

[부록 3] '돌림쓰기'를 한 학생들의 쓰기 활동 결과



[부록 1] '돌림쓰기' 활동지

활동지 ①

## 함께하는 '돌림쓰기'

( )모둠

쓰기 전	쓰기 중	쓰기 후
------	------	------

계획하기

⇒

내용  
생성하기

⇒

조직하기

⇒

표현하기

⇒

교정하  
기

■ 주제 : 사회 2단원 '달라지는 생활 모습' 되돌아보기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여 '달라지는 생활 모습'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써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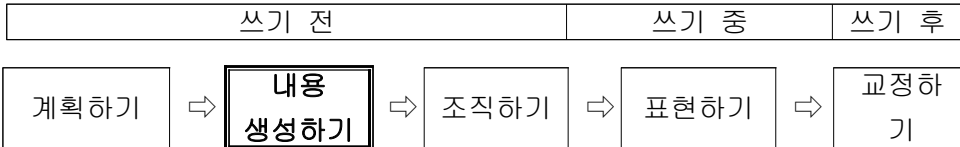
□ 모둠이 함께 계획해요.

▪ 글을 쓰는 목적		
▪ 읽을 사람 정하기		
▪ 글의 길이 정하기		
▪ 역할 분담하기	주제	말은 사람
	작은 주제1) 달라진 의생활	
	작은 주제2) 달라진 식생활	
	작은 주제3) 달라진 주생활	
	작은 주제4) 달라진 놀이 생활	

활동지 ②

# 함께하는 '독립쓰기'

( )모둠- 이름:



■ 주제 : 사회 2단원 '달라지는 생활 모습' 되돌아보기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여 '달라지는 생활 모습'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써 봅시다.

□ 내가 맡은 주제 :  
- 내가 맡은 주제에 대하여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개할 내용을 떠올려 봅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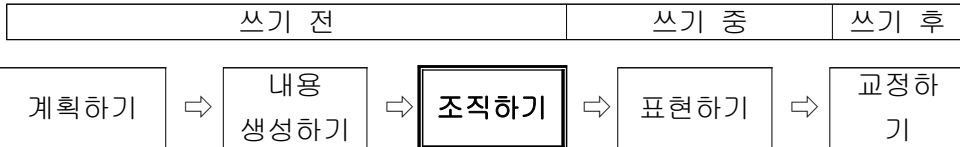
- 내용을 떠올린 후에 오른쪽 방향으로 학습지를 돌려주세요.
- 앞 친구가 떠올린 내용 중 덧붙일 내용이 있다면 이어서 써 주세요.



활동지 ③

# 함께하는 '동립쓰기'

( )모둠- 이름:



■ 주제 : 사회 2단원 '달라지는 생활 모습' 되돌아보기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여 '달라지는 생활 모습'에 대해 소개하는 글  
을 써 봅시다.

□ 내가 맡은 주제 :  
- '활동지②'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하여 생각 그물로  
조직하여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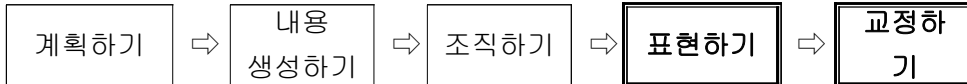
- 내용을 조직한 후에 오른쪽 방향으로 학습지를 돌려주세요.
- 앞 친구가 조직한 내용 중 덧붙이거나 고칠 내용이 있다면 써 주세요.

활동지 ④

## 함께하는 ‘ 독립쓰기 ’

(            )모둠- 이름:

쓰기 전	쓰기 중	쓰기 후
------	------	------



- 주제 : 사회 2단원 ‘달라지는 생활 모습’ 되돌아보기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여 ‘달라지는 생활 모습’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써 봅시다.
- 내가 맡은 주제 :  
 - ‘활동지③’에서 조직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개하는 글을 써 봅시다.

 <span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span> <span>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span>

- 내용을 표현한 후에 오른쪽 방향으로 학습지를 돌려주세요.
- 앞 친구가 표현한 내용 중 덧붙이거나 고칠 내용이 있다면 써 주세요.

활동지 ⑤

함께하는 '독립쓰기'

( )모둠- 이름:

주제 : 사회 2단원 '달라지는 생활 모습' 되돌아보기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여 '달라지는 생활 모습'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써 봅시다.

내가 말은 주제 : 달라진 의생활  
- '활동지④'에서 표현 · 교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개하는 글을 완성해 봅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부록 2] '돌림쓰기'를 하지 않은 학생들의 쓰기 활동 결과

활동 결과 1)

주제: 달라진 의생활

박△서

저는 달라진 의생활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남자들은 저고리, 바지, 도포를 주로 입었어요.

옛날에 여자들은 저고리, 치마, 장옷을 주로 입었고요.

하지만 서양식 옷이 들어오면서 한복 대신 양복, 셔츠, 블라우스, 치마, 청바지 등을 즐겨 입게 되었어요.

이처럼 몸을 보호하거나 멋을 내기 위하여 입는 옷과 관련된 생활을 의생활이라고 해요.

옛날 사람들의 여름옷은 삼베옷, 겨울옷은 비단옷을 입어요. 하지만 오늘날 여름에는 얇은 반팔옷, 얇은 반바지를 입고 겨울에는 두껍고 긴 바지와 두껍고 긴 옷을 입지요. 옛날에는 한복을 매일 입었지만 오늘날에는 특별한 날에만 한복을 입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버선을 신고 오늘날에는 양말을 신어요. 옛날 사람들은 만들기 쉬운 짚신, 나막신을 신었어요. 시간이 가면서 고무신이 탄생하며 짚신과 나막신이 없어졌어요. 또 운동화와 구두가 탄생하면서 고무신을 신는 사람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옛날과 오늘날의 의생활은 달라요.

활동 결과 2)

주제: 달라진 식생활

오△준

저는 달라지는 식생활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옛날과 오늘날에 음식을 만들 때 불을 사용하는 것은 똑같지만 옛날에는 불을 사용할 때 나무로 불을 짚혔고 오늘날에는 가스레인을 사용합니다. 또 옛날에는 밥을 지을 때 가마솥을 사용했고 오늘날에는 밥솥을 사용합니다. 음식은 옛날에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고 요즘은 스파게

티나 피자 같이 다른 나라의 음식이나 가공식품들도 먹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옛날에는 부엌이 거실과 구분되어 있지만 오늘날에는 거실과 부엌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많다. 왜 그럴까? 이유는 옛날 부엌을 장작으로 불을 지펴서 사용해서 연기가 나와서 거실과 분리되어 있는 거고 오늘날에는 가수레인지를 사용해서 연기가 나지 않아 거실과 같이 붙어 있는 것이다.

#### 활동 결과 3)

주제: 달라진 주생활

박△영

저는 달라진 주생활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짚이나 기와를 이용해서 초가집, 기와집을 만들었지만 오늘날에는 벽돌을 이용해서 큰 아파트나 빌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옛날과 오늘날에는 주로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데에 불을 사용한 점이 비슷하지요. 그리고 옛날에는 화장실이 집 밖에 있지만 오늘날에는 집 안에 있지요. 그래도 지금도 옛날에 살던 집 ‘한옥’에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옥은 몸과 건강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의 달라진 주생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의 전기 기기들이 발전하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도 달라진 주생활을 찾아보세요. 단독 주택, 아파트는 오늘날, 초가집과 기와집은 옛날. 그러면 옛날과 오늘날의 달라진 생활 모습을 알게 될 테니까요.

#### 활동 결과 4)

주제: 달라진 놀이 생활

최△환

저는 달라진 놀이 생활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다양한 놀이가 있습니다. 제기차기, 말놀이 등의 놀이 오늘날에는 인라인 스케이트 등을 탔습니다. 옛날은 오늘날과 달리 할 놀이가 별로 없었지만 오늘날은 컴퓨터 등 놀이게임을 했다. 옛날에는 공이 없고 오늘날은 공이 있으며 옛날과 오늘날에 차이점은 아주 많았다. 옛날에는 놀이 준비물을 찾아서 어렵게 구했지만 오늘날에는 집이나 문구점 등 같은 데에서 놀이

준비물을 쉽게 사서 얻을 수 있었다. 옛날과 오늘날은 놀이가 많이 변화가 되었다.

활동 결과 5)

주제: 달라진 의생활

신△희

옛날에는 한복이나 무명옷 삼베옷 등을 입었지만 오늘날에는 티셔츠, 청바지, 치마를 입는다. 그리고 옛날 여자는 저고리, 치마, 장옷을 입었고 남자는 저고리, 바지, 도포를 주로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서양식 옷이 들어오면서 한복 대신 서양식 옷을 입고 버선 대신 양말을 신고 갓을 벗고 머리를 짧게 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양복, 셔츠, 블라우스, 치마, 청바지 등을 즐겨 입습니다. 계절에 따라 입는 옷이 다르다는 것은 옛날과 같지만 남자옷과 여자옷의 구분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처럼 몸을 보호하거나 멋을 내기 위하여 입는 옷을 의생활이라고 합니다. 또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은 한복을 입고 생활하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입는 옷이 달랐고 계절에 따라 입는 옷이 달랐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주로 삼베옷과 모시옷을 입었고 추운 겨울철에는 주로 무명옷과 비단옷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옛날과 오늘날의 의생활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활동 결과 6)

주제: 달라진 식생활

이△운

요즈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 말고도 다른 나라의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음식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 당시에는 외국 음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것은 똑같지만 옛날엔 땀감을 나무로 이용했고 지금은 가스나 전기를 이용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 옛날에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가공식품으로 음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활동 결과 7)

주제: 달라진 주생활

고△희

옛날 우리 조상들은 흙, 나무, 돌 등에 자연재료를 사용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주로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아파트와 같은 양옥에서 사용한다. 그러면서 초가집과 기와집은 줄어들고 아파트, 연립주택 등이 많이 생겨지고 있다.

옛날에는 어두워지면 호롱불을 사용하여 안을 밝혔지만 지금은 전기를 이용하여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옥을 바꾸어 현재에 맞는 한옥도 만들어집니다. 겉모습은 한옥이지만 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같습니다. 그리고 한옥은 건강에도 좋습니다. 한옥은 나무와 짚, 흙, 한지를 사용하여 짓습니다. 창문과 문에 바른 한지는 유리창과 달리 공기가 통하여 환기가 잘 되고 습기도 자연스럽게 조절해 줍니다. 또한, 황토에 집을 섞어 바른 벽이나 방바닥은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활동 결과 8)

주제: 달라진 놀이 생활

설△환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무슨 놀이를 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옛날에는 새끼자와 어미자로 하는 자치기나 연과 얼레로 하는 연날리기, 그 외에도 고무줄놀이, 딱지치기, 공기놀이, 땅따먹기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 놀이의 공통점은 대부분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야외에서 합니다.

그럼 오늘날의 놀이는 보드게임이나 인라인스케이트 그 외에도 컴퓨터 게임, 스타워즈, 비디오 게임, 놀이공원, 실내 놀이터, 축구, 수영 등이 있습니다. 스타워즈나 축구처럼 야외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보드게임이나 컴퓨터 게임 등처럼 실내에서 하는 게임이 의외로 더 많습니다.

오늘날과 옛날 놀이의 공통점은 남녀 누구나 합니다.

차이점은 옛날 놀이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요즘 놀이는 사람이 조금밖에 없어도 되고 옛날 놀이는 대부분 야외에서 했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분 실내에서 합니다. 이런 놀이가 많으니 여러분도 한 번 해 보세요.

#### 활동 결과 9)

##### 주제: 달라진 의생활

오△원

옛날에는 한복을 많이 입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옷차림이 바뀌었고 한복을 입은 사람을 종종 볼 수 없었다. 이제는 설날 또는 추석 중요 행사 때만 한복을 입고 이제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으로 변화했다. 한복은 아주 편하지만 입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한복은 편안함을 살린 생활 한복으로 바뀌었다. 1900년대 1940년대 1970년대 2010년대 계속 바뀌었다. 옛날 여름 한복은 삼베옷이라 했고 옛날 겨울 한복은 비단옷이라고 했다.

신발은 처음에는 짚신, 나막신, 고무신, 운동화, 구두로 시대가 바뀌면서 신발도 바뀌었다. 오늘날에는 여름은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겨울에는 스킨, 동물의 털로 되어있는 옷을 입었다. 옷과 신발은 시대별로 많이 변해왔고 이제는 우리는 운동화나 구두 또는 반팔, 반바지, 긴팔 등의 옷을 입고 생활한다.

#### 활동 결과 10)

##### 주제: 달라진 식생활

양△혁

지방마다 김치의 맛이 다르다. 김치는 채소, 양념, 젓갈을 섞어서 담근다. 사용하는 양념과 젓갈, 소금의 양은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다. 북부지방은 국물이 넉넉해 싱겁고 시원한 맛의 김치를 담근다. 겨울이 길고 추운 북부지방에서는 소금과 양념을 적게 넣어 싱겁고, 채소의 맛과 향을 그대로 살린 김치를 주로 담근다.

중부지방은 싱겁거나 맵지 않은 담백한 맛의 김치를 담근다. 중부 지방에서는 담백한 젓갈을 넣어 싱겁거나 짜지 않은 김치를 담근다.

남부지방은 맵고 짠 강렬한 맛의 김치를 만든다. 겨울에도 따뜻한 남부지방에



서는 김치가 빨리 쉬는 것을 막기 위하여 김치에 소금과 각종 양념을 많이 넣어서 김치가 맵고 짜다.

활동 결과 11)

주제: 달라진 주생활

류△현

옛날에는 온돌을 사용하였습니다. 구조는 아궁이를 통해서 연기가 구들장을 지나 굴뚝으로 나갑니다. 온돌은 아궁이에 불을 붙인다음 불을 꺼도 바닥이 따뜻합니다. 오늘날에는 보일러가 사용됩니다. 보일러는 따뜻한 물이 바닥에 설치된 관을 따라서 방바닥을 따뜻하게 합니다. 또 오늘날에는 가마솥을 본뜬 전자 밥솥, 맷돌을 본뜬 믹서, 인두를 본뜬 다리미 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생활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옛날에 한옥은 건강에도 좋았다고 합니다. 문은 한지를 바르면 환기가 잘되고 습기도 조절해줍니다. 그리고 황토로 만든 집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합니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멋과 슬기를 이어져 왔습니다.



활동 결과 12)

주제: 달라진 놀이 생활

서△랑

요즘 어린이들은 피구, 축구, 농구 등 전통 놀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 놀이 중 사라져 가는 전통 놀이는 비석치기나 자치기, 새총쏘기 등 자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통 놀이에는 (실뜨기, 공기놀이, 비석치기, 자치기, 팽이, 연날리기, 딱지치기, 땅따먹기, 고무줄 놀이 등) 많은 전통놀이가 있는데 사람들은 점점 현재의 놀이에 폭 빠져있다. 그래서 어른들도 전통 놀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제 점점 전통 놀이를 더욱 익숙히 하는 게 좋다.

활동 결과 13)

주제: 달라진 의생활

양△혁

옛날에는 비옷이 도롱이었지만 오늘날은 우의이다. 그리고 옛날은 한복이나 갈옷을 입었지만 오늘날이면 양복이나 일상복을 입는다. 이와 같이 옛날의 옷과 오늘날의 옷이 달라졌지만 음식, 놀이, 집의 많은 게 달라졌다. 남자는 저고리, 바지, 도포를 자주 입었고, 여자는 저고리, 치마, 장옷을 주로 입었다. 여름에는 삼베옷을 입고 겨울에는 비단옷을 입곤 했지만 오늘날 같으면 셔츠, 블라우스, 치마, 청바지를 즐겨 입는다. 옛날 사람들은 신발을 짚신, 나막신, 고무신 같은 것을 신었지만 오늘날은 운동화, 구두가 있다. 옛날과 오늘날에 달라진 생활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

#### 활동 결과 14)

주제: 달라진 식생활

김△모

나는 식생활을 소개하겠다. 지금과 옛날은 바뀐 환경과 기술이 달라져 대부분의 음식이 바뀌었지만, 어떤 음식들은 아직도 우리 탁자에 놓여져 있다. 그러면 먼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음식들을 소개하겠다. 첫 번째는 김치이다. 김치는 예전에서부터 전해오는 유명한 음식이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만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놀이이다. 예전에는 김치를 김장독에 보관했지만, 지금은 김치냉장고나 냉장고에 보관한다. 또 다른 예는 팔죽이다. 팔죽은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왔다. 예전에는 팔죽에 쌀을 넣었는데, 지금은 국물과 떡만 있다. 이제는 바뀐 음식들을 소개하겠다. 그 예 중 하나가 라면이다. 라면은 옛날의 칼국수를 바꾸어서 만든 음식이다. 라면은 이제 인기가 하늘을 뚫는다. 칼국수는 인기가 없어 라면을 만든 것 같은데, 이 바꿈은 성공적이다. 이처럼 오늘날은 옛날 음식도 먹고, 새로 개발된 음식도 먹는다.

#### 활동 결과 15)

주제: 달라진 주거생활

강△혜

옛날에는 사람들이 초가집과 기와집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과 아파트에 삽니다. 오늘날의 집은 화장실이 안에 있지만 옛날에

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다. 또한 옛날에는 부엌이 밖에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집 안에 있다. 옛날에는 온돌을 사용하여 방을 댕겼는데 오늘날에는 보일러를 사용한다. 인두는 다리미로 댕돌은 믹서기로 김장독은 김치 냉장고로 가마솥은 전기 밥솥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물을 길어다가 사용하였지만 지금은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을 아껴쓰는 습관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호롱불을 사용하여 밤에 불을 밝히고 거의 일찍 잤습니다. 오늘날에는 전등을 켜서 밤 늦게까지 환하게 밝힙니다. 옛날에는 불편했던 것을 고쳐 오늘날을 편리해졌지만 좋은 습관들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활동 결과 16)

주제: 달라진 놀이 생활

이△주

나는 공기를 소개하려고 한다. 공기를 하려면 조그만 돌 5개를 준비한다. 먼저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서를 정한다. 둘째, 공기 다섯 알 뿌리기, 세 번째, 한 알씩 집는다. 만약 5알을 떨어지지 않고 1단계를 통과하면 2단계, 두 알씩 집는다. 네 번째, 고추장을 찍고 공기들을 잡으면 된다. 여섯 번째, 네 알 내려놓고 한꺼번에 집는다. 마지막으로 세 알을 집고, 한 알을 집는 것이다. 옛날 아이들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밖에서 많은 놀이들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렇게 놀이를 하면 공기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활동 결과 17)

주제: 달라진 의생활

유△채

저는 달라진 의생활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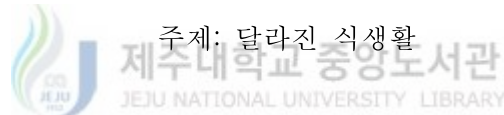
옛날에는 한복을 입었지만 지금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옛날에 여자한복은 활동하기에 불편하고, 여러 겹을 입어서 불편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저고리, 치마, 장옷을 주로 입었고, 남자들은 저고리, 바지, 도포를 주로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삼베옷, 겨울에는 비단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양식 옷이 들어오면서 한복 대신 양복, 셔츠, 블라우

스, 바지, 치마 등을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신발은 구두, 부츠, 운동화 등을 신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반팔, 겨울에는 긴팔을 입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짚신→나막신→고무신→운동화, 구두로 변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편안함을 살린 생활 한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유의 옷인 한복에는 조상들의 멋과 슬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복을 빨강, 파랑, 노랑, 검정, 하양의 오방색을 사용하여 다양한 색을 보여줍니다. 품이 넉넉하여 누구든지 맵시를 낼 수 있습니다. 직선과 곡선의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습니다. 옷이 몸에 붙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여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멋과 슬기를 이어받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옛날 한복은 활동하기에 불편하고 세탁하거나, 보관하기가 어렵지만 한복은 누구나 입어도 예쁩니다. 그리고 비오는 날에는 장옷을 주로 입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 옷인 한복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활동 결과 18)



김스나

옛날과 오늘날에 음식을 만들 때에 불을 쓰는 것이 같다. 그렇지만 다른 점도 있다. 옛날에는 주로 나무나 땔감을 이용하여 불을 피웠지만 오늘날은 가스나 전기를 이용하여 요리를 만들었다. 또 옛날에는 부엌과 거실이 따로 있어 불편하였지만 오늘날에는 부엌과 거실이 함께 있어 편리하다.

옛날에는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지만 오늘날에는 옛날에 있었던 음식 뿐만 아니라 햄, 라면 등의 가공식품들도 먹습니다. 또한 피자, 스파게티와 같은 다른 나라에서 온 음식도 먹습니다. 오늘날의 식생활은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 그래도 오늘날에는 옛날부터 먹었던 김치, 국, 밥은 여전히 먹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명절과 계절에 따라 먹는 음식들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설날에는 떡국, 여름철에는 삼계탕을 먹고 추석에는 송편도 먹는다. 동지날에는 팔죽을 먹는다.

또 옛날에는 김치, 두부, 콩과 밥, 국과 같은 자연에서만 얻어온 것이다.

오늘날에는 돈까스, 참치, 고등어, 계란, 밥, 국, 시금치와 같은 가공 식품들과

다른 나라에서 온 수입 음식도 먹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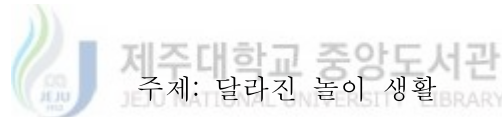
활동 결과 19)

주제: 달라진 주생활

임△승

옛날 우리 조상들은 한옥에서 살았습니다. 한옥은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흙, 나무, 돌 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붕의 재료에 따라 초가집과 기와집 등으로 나뉩니다. 또 주방과 거실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아파트와 주택이나 연립주택에서 주로 생활합니다. 아파트, 주택, 연립주택을 양옥이라고 합니다. 또 옛날에는 화장실이 집 안에 없었지만 지금은 화장실이 집 안에 있다. 또 옛날에는 물을 우물이나 시냇가에서 물을 길어와 사용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집집마다 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물을 쉽게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집과 관련된 생활을 주생활이라고 합니다.

활동 결과 20)



강△성

옛날에는 자주 한 놀이가 있습니다. 비석치기, 팽이치기, 고무줄놀이, 공기놀이, 또는 실뜨기 등을 하는 전통 놀이였습니다. 옛날에는 또 전통 춤도 추면서 놀았다. 근데 오늘날에는 주로 하는 놀이가 게임, 축구, 달리기시합, 경주를 자주 하고 멋진 놀이도 했다. 설명해주지. 옛날에 자주 한 놀이가 공기다. 공기는 돌맹이로 했는데 오늘날에는 문구점에 파는 것을 했다. 오늘날 축구는 공으로 상대방을 넘기고 축구를 해서 골을 넣는 놀이다. 그래서 점수를 내서 제일 많이 골을 넣는 선수가 이깁니다. 또는 그 다음 유명한 놀이가 고무줄놀이다. 그건 고무줄을 1단, 2단, 3단, 4, 5, 6, 7, 8단 제일 많이 간 사람이 이깁니다. 오늘날에는 게임이다. 게임은 cd를 넣어가지고 컴퓨터를 틀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꼭 해보세요.

활동 결과 21)

## 주제: 달라진 의생활

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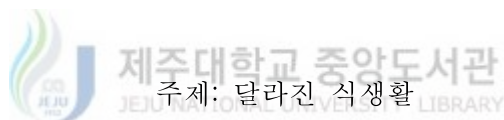
내가 맡은 주제는 의생활입니다. 지금부터 의생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남자들이 주로 저고리, 바지, 도포를 입었고, 여자들은 저고리, 치마, 장옷을 입었습니다. 옛날에는 한복을 입고 생활을 하였고 무더운 여름철에는 주로 삼베옷과 모시옷, 추운 겨울철에는 주로 무명옷과 비단옷을 입었습니다.

반면 오늘날에는 서양식 옷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한복 대신 서양식 옷을 입고 버선 대신 양말을 신고 갓을 벗고 머리를 짧게 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 입는 옷이 다르다는 것은 같지만, 남자옷과 여자옷의 구분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구두도 옛날에는 짚신을 이것처럼 신으면서 점점 발전한 것입니다. 이처럼 몸을 보호하거나 멋을 내기 위하여 입는 옷과 관련된 생활을 의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생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활동 결과 22)



허△은

옛날에는 부엌과 마루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부엌과 마루가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무를 뿔감으로 썼지만 오늘날에는 전기가 발달되어 가스나 전기를 이용합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만든다는 것은 같은 점입니다. 옛날에는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음식뿐만 아니라 햄, 라면 등의 가공식품도 먹습니다. 또한 피자나 스파게티와 같은 다른 나라의 음식도 먹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밥과 국, 반찬을 먹고 있다는 점과 된장, 고추장, 간장 등과 같은 전통 음식을 먹는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절과 계절, 절기에 따라 먹는 음식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세시음식이라고 하는데, 설날에는 떡국, 여름철에는 삼계탕, 추석에는 송편, 동지에는 팔죽을 먹습니다.

이와 같이 음식과 관련된 생활을 식생활이라고 합니다.

활동 결과 23)

주제: 달라진 주생활

김△철

제가 맡은 주제는 ‘주생활’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양반은 기와집, 서민들은 초가집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에 따라 사는 집이 달랐습니다. 들과 곡식이 많은 평지에서는 주로 초가집을 만들어 살았고, 산 속에 사는 사람들은 나무가 많기 때문에 너와집을 만들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아주 편리한 난방장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건 바로 ‘온돌’입니다. 당시 외국에서는 벽난로를 사용하였습니다. 벽난로에는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그 벽난로에 불을 피우면 연기가 올라와 질식할 수 있고 또 가까이 가야만 따뜻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다다미’라는 난방장치를 썼는데 몸에 일부만 따뜻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조상들은 ‘온돌’을 이용하여 따뜻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온돌’의 구조는 먼저 아궁이에서 불을 때우면 연기가 방바닥을 지납니다. 이 때 연기가 통하는 곳을 ‘고래’라고 합니다. ‘고래’에서 머물러 있는 연기가 방바닥을 데우고 가벼워진 연기는 굴뚝으로 빠져 나갑니다. 그러면 화재도 줄이고 따뜻하고 밥도 지을 수 있습니다.

활동 결과 24)

주제: 달라진 놀이 생활

장△셉

옛날에는 공기를 돌로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공기알로 씹니다. 그리고 자치기를 나무로 하는데 오늘날에는 플라스틱처럼 합니다. 그리고 말뚝박기를 하는데 오늘날은 술래잡기, 그리고 옛날은 땅따먹기를 하는데 오늘날은 거의 안합니다. 실뜨기도 잘 안 합니다. 오늘날에 하는 놀이는 컴퓨터, 보드게임, 비디오게임, 축구, 수영 등등입니다.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놀이터에서 제일 많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고 하면 놀이 생활이 달라지겠죠. 전자 자전거, 전자딱지 등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즐겨보세요.

활동 결과 25)

주제: 달라진 의생활

김△형

제가 소개할 주제는 의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의생활은 꼭 사람에게 필요하고 아주 편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의생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옛날에 의생활은 오늘처럼 남녀 구분이 없지 않았습니니다. 여자는 치마와 장옷,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남자는 저고리, 바지, 도포를 입었습니다. 또 계절에 따라 입은 옷도 달랐습니다. 여름에는 삼베옷, 모시옷을 입고 겨울에는 비단옷, 무명옷을 입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서양식 옷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한복 대신 서양식 옷을 입고 버선은 양말로 오늘날 사람들은 셔츠, 양복, 블라우스, 치마, 청바지 등을 입습니다.

신발은 어떻게 변해 왔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 이삭을 떨어낸 줄기인 짚은 신발로 만들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나막신을 신었습니다. 그런데 고무신이 광고에 나오자 점차 짚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점차 더 튼튼하고 디자인이 다양한 운동화나 구두가 등장하면서 고무신 역시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의생활에 같은 점은 계절에 따라 입는 옷이 다릅니다. 의생활에 다른 점은 남녀 옷 구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활동 결과 26)

주제: 달라진 식생활

선△

저는 식생활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옛날 식생활에는 주로 밥과 국 등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반찬을 먹었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다른 나라 전통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옛날에서는 주막에서 밥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에서도 음식점에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밥을 만들 때 옛날에는 전기밥솥이나 압력밥솥이 없었기 때문에 가마솥으로 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먹을 때 옛날에는 김장독으로 하였지만 오늘날에는 김치냉장고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김치는 세계적으로도 김치가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또 옛날과 오늘날의 공통점은 밥과 국, 반찬, 된장, 고추장, 간장



등과 같은 전통 음식을 먹는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음식과 관련된 생활을 식생활이라고 합니다.

활동 결과 27)

주제: 달라진 주생활

박스리

저는 주생활에 대해 소개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집, 초가집, 기와집이었는데 오늘날이 되니까 아파트, 주택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화장실이 집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집마다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시냇가에서 씻기, 빨래 등을 하였고 오늘날에는 집마다 수도가 설치되어 있어 집안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옥은 자연에서 잘 찾을 수 있는 흙, 나무, 돌 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붕에 재료에 따라 초가집과 기와집 등으로 나눕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면서 아파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택 등 경비원이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어두워지면 호롱불을 사용하여 방안을 밝혔지만 오늘날에는 전기를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집과 관련된 생활을 주생활이라고 합니다.

활동 결과 28)

주제: 달라진 놀이 생활

김스현

제가 소개할 주제는 놀이다. 옛날에는 주로 실뜨기, 자치기, 땅따먹기, 고무줄 놀이, 딱지, 공기, 새총, 팽이 등 여러 가지 놀이가 있었다. 오늘날에는 보드게임, 인라인스케이트, 컴퓨터게임, 술래잡기, 비디오 게임, 놀이공원, 실내 놀이터, 축구, 수영 등 여러 가지 놀이가 있다. 옛날에 놀이 중 실뜨기, 자치기, 땅따먹기, 고무줄놀이, 딱지, 공기, 새총, 팽이 등 오늘날에도 옛날 놀이를 할 수 있다.

[부록 3] '돌림쓰기'를 한 학생들의 쓰기 활동 결과

활동 결과 1)

주제: 달라진 의생활

김○은

외국인 아저씨께

안녕하세요? 외국인 아저씨, 저는 김다은이라고 해요.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사회 복습을 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외국인 아저씨께 달라진 의생활에 대해서 얘기 할게요. 옛날에는 한복, 비단옷, 무명옷 등을 입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티셔츠, 치마, 바지 등 외국에서 들어온 옷을 입어요. 그리고 옛날 여름에는 삼베옷과 모시옷을 주로 입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무명옷과 비단옷을 입었어요. 옛날에는 남녀 차별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여자도 바지를 입고 남녀 차별이 없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의생활이 달라진 이유는 서양식 옷들이 들어오면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



활동 결과 2)

주제: 달라진 식생활

강○현

안녕하세요? 외국인 아저씨?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사회 2단원 복습을 위해서예요. 제가 소개할 글의 주제는 달라진 식생활이에요.

옛날에는 다른 나라 음식을 먹지 않았고 가공식품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농약도 쓰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는 주로 다른 나라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가공식품을 주로 먹기도 해요.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 먹는 게 달랐지만, 오늘날에는 모두가 비슷하게 먹어요. 그리고 보통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추석에는 송편을 주로 먹고, 여름에는 삼계탕을 먹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농약을 좀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밥, 국, 김치, 콩, 채소 등을 먹었어요. 오늘날에는 옛날과 같이 밥, 국, 김치 등은 먹는데 외국 음식을 많이 먹거나 햄, 라면과 같은 가공식품을 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잘 아셨죠?

아저씨가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활동 결과 3)

주제: 달라진 주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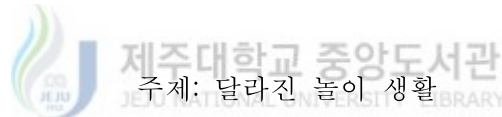
이○진

외국인 할머니께

안녕하세요, 외국인 할머니? 제가 설명할 주제는 '달라진 주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2단원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설명하자면 옛날에는 집이 초가집과 기와집 등의 한옥이었습니다. 한옥은 우리나라 집이고, 양옥은 서양식 집이에요. 오늘날은 아파트와 주택, 양옥 등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화장실이 집 안에 있습니다. 차이점을 잘 아시겠죠? 이제 한국에 오셔도 잘 아셔야 돼요.

활동 결과 4)



이○현

외국인 아저씨께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이라고 해요. 저는 아저씨께 달라진 놀이 생활을 설명하려고 해요.

옛날에는 연날리기 등 놀이를 했어요. 옛날에는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놀이도구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마트에서 재료를 구입해요. 옛날에는 차가 없어서 길가에서 놀았지만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차가 많아 위험해서 주로 실내에서 놀아요. 요즘은 외국에서 들어온 놀이를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 놀이만 했어요. 사라지는 놀이들도 있어요. 자치기, 구슬치기가 없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만다는 것도 놀이였대요. 저도 한 번 해 보고 싶어요.

아저씨도 꼭 해 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활동 결과 5)

주제: 달라진 의생활

고○연

외국인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고○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의 의생활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싶어서입니다.

먼저, 옛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한복을 입고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한복에도 불편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복을 입지 않고 서양식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도포, 갓을 벗고 여자들은 저고리와 치마를 벗고 서양식 옷들을 입었습니다. 생활한복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한복을 입는 횟수가 늘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여름에 삼베옷, 모시옷을 입었지만 요즘에는 반팔과 반바지 등을 입습니다. 겨울에는 비단옷, 무명옷을 입었지만 요즘에는 털옷과 같은 옷을 입습니다. 신발은 나막신, 고무신에서 구두, 하이힐과 같은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줄이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활동 결과 6)

주제: 달라진 식생활

이○준

외국인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제주도에 사는 이○준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외국인들께 우리나라의 식생활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옛날의 식생활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김치, 나물, 콩, 두부, 간장, 국,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추석에는 송편을 먹고, 설날에는 떡국을 먹습니다. 다음은 오늘날입니다. 오늘날에는 주로 서양식 음식이나 가공식품, 다른 나라의 음식도 먹습니다. 그리고 김치, 나물, 두부, 콩 등처럼 옛날에 먹던 음식도 먹습니다. 그리고 햄, 라면, 비빔밥, 떡볶이, 불고기, 한우, 꼬치, 돈가스, 햄버거, 튀김, 자장면, 짬뽕, 치킨, 피자, 족발, 불닭, 쫄면, 라볶이, 햄버거스테이크 등 더 많은 종류의 음식을 먹습니다.

외국인분들도 우리나라의 전통음식을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달라진 식생활을 마치겠습니다.



활동 결과 7)

주제: 달라진 주생활

양○상

외국 아이에게

안녕? 나는 3학년 양○상이야. 나는 너에게 달라진 주생활을 소개시켜주려고 이 글을 쓰고 있어. 너는 우리나라의 주생활에 대해 모르지? 내가 왜 소개해 주나하면 우리나라 집이 멋지기 때문이야. 이제 소개시켜줄게.

옛날에는 거의 초가집 등에 살았어. 그리고 기와집도 만들었지. 그리고 오늘날에는 아파트, 주택, 빌라 같은 집에서 살아. 왜 이렇게 집이 바뀌었냐면 공장에서 벽돌, 콘크리트나 시멘트, 철 같은 걸로 빌라, 아파트를 잘 만들게 되었기 때문이야. 옛날에는 부엌과 거실이 따로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부엌과 거실이 붙어있어. 화장실도 집 안에 있지. 너도 여기 놀러와 봐. 엄청 신기할거야. 그런데 나도 옛날이 이런 줄 몰랐어. 생활이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아.

그럼 안녕!

활동 결과 8)

주제: 달라진 놀이 생활

정○민

외국인께

안녕하세요? 저는 ○민이에요. 제가 달라진 놀이 생활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에는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비사치기, 공기놀이, 술래잡기, 숨바꼭질 등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옥상탈출, 술래잡기, 숨바꼭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피구, 축구, 자전거타기, 컴퓨터 게임, 요요, 오목, 부루마블이나 텀블링 몸치, 인생게임 등을 해요. 옛날에는 밖에서 하는 놀이가 실내에서 하는 놀이보다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그에 비해 실내에서 하는 놀이가 더 많아요. 이렇게 놀이 생활이 달라진 이유는 많은 아이들이 학원에 가면서 점점 바빠졌고,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비디오 게임같이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도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줄일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활동 결과 9)

주제: 달라진 의생활

양○찬

안녕하세요? 할머니, 제가 오늘 달라진 의생활에 대하여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아시는 것보다 더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서요.

의생활에서 옛날 여자는 저고리, 장옷, 침, 땀가죽 등을 입었어요. 그리고 옛날 남자는 도포, 갓, 바지, 저고리 등을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옛날 여름에는 삼베 옷, 모시옷을 입었고, 겨울에는 비단옷, 무명옷을 입었어요. 오늘날 여자는 치마, 블라우스, 스커트, 원피스, 가디건, 운동복 등을 입고, 남자는 양복, 운동복, 셔츠 등을 입어요. 오늘날은 남녀 차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통으로 입는 옷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지, 잠옷, 잠바, 운동복 등이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한복을 안

입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계속 입을 수 있어요. 한복 중에서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생활 한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활 한복은 움직이기 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한복이 아름답기도 하고, 몸에도 좋으니 많이 입어요.

이제 잘 아시겠죠? 안녕히 계세요.

#### 활동 결과 10)

주제: 달라진 식생활

이○호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 ○호예요. 새롭게 바뀐 식생활에 대해 알고 있으시나 해서 소개해 드리려고요.

옛날에는 부엌과 마루가 구분되어 있었고 쪄그려서 밥을 지었어요.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했고 가마솥과 맷돌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부엌에는 여자만 들어갔어요.

오늘날에는 서서 밥을 짓고 마루와 부엌이 붙어 있어요. 가마솥 대신 전기밥솥, 맷돌 대신 믹서기를 사용해요. 그리고 부엌에 남자도 들어가죠.

그리고 옛날에는 국, 밥, 생선, 간장(찍어먹음), 된장, 찌개, 굴, 굴, 김치 등을 먹었어요. 오늘날에는 서양식 음식이 들어오면서 카레, 피자, 치킨, 우동, 라면, 햄버거 등을 먹어요. 그러면서 옛날 음식들도 먹기도 해요.

요리할 때의 공통점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불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든다는 점이에요.

또 세시음식도 있는데, 세시음식에는 설날에 먹는 떡국과 만둣국, 여름철에 먹는 삼계탕, 추석에 먹는 송편과 동지에 먹는 팔죽도 포함돼요.

이제 잘 아셨죠? 오래오래 기억해 두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안녕히 계세요.

#### 활동 결과 11)

주제: 달라진 주생활

김○지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 ○지예요.

옛날에는 기와집이나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초가집은 지붕을 짚으로 만들었고, 기와집은 지붕을 기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단독주택, 아파트 등에 사람들이 살아요. 사람들이 많아졌고 기술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옛날과 다르게 화장실이 집 안에 있고, 부엌과 거실이 하나로 합쳐있는 경우가 많아요.

할머니께서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활동 결과 12)

주제: 달라진 놀이 생활

양○나

안녕하세요? 할머니! 제가 오늘 할머니께 달라진 놀이 생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할머니께서는 달라진 놀이 생활을 잘 알고 계시나요? 만약 잘 모르신다면 제 글을 통해 아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놀이 도구를 만들 때 주로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돌 등을 이용했어요. 옛날 남자아이들은 주로 비사치기, 말뚝 박기, 자치기를 했어요. 옛날 여자아이들은 주로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실뜨기, 공기놀이를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주로 실외에서 놀이를 하였어요. 오늘날에는 다양한 전자기기를 구입해서 놀아요. 남자아이들은 주로 축구, 야구, 농구를 즐기고, 여자아이들은 술래잡기, 꼬마야 꼬마야, 보드게임(체스, 바둑) 등을 즐겨 해요. 옛날 놀이와 오늘날 놀이가 달라진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 서양식 놀이와 게임이 들어오고 널리 퍼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옛날 놀이를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할머니께서 놀이 생활이 달라진 이유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 소개하는 글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활동 결과 13)

주제: 달라진 의생활

김○빈

미국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사는 김○빈이라고 해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주 입는 옷이나 전통 의상을 알았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에 한복을 입었어요. 한복은 거의 ‘오방색’을 사용하여 무늬는 내는데 오방색의 종류는 빨강, 파랑, 노랑, 하양, 검정이 있어요. 한복은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루어 선이 아름다워 보여요. 옛날 여름철에는 주로 삼베옷과 모시옷을 입었고, 겨울철에는 무명옷과 비단옷을 입었어요. 옛날 남자들은 갓을 쓰고, 저고리, 바지, 도포를 자주 입었고 여자들은 비녀를 꽂고 저고리, 치마, 장옷을 주로 입었어요. 오늘날에는 서양식 옷을 입어요. 양복, 블라우스, 치마, 청바지, 양말, 잠바, 모자, 셔츠 등을 입고, 구두와 운동화를 신어요. 옛날과 오늘날의 의생활에서 같은 점은 계절에 따라 입는 옷이 다르다는 것이 있고, 다른 점은 옛날에는 남자 옷과 여자 옷의 구별이 뚜렷했지만 오늘날에는 구별이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의생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활동 결과 14)



주제: 달라진 식생활

하○우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제주도에 사는 하○우예요. 저는 이 글로 달라진 식생활을 소개할 거예요. 잘 읽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옛날에는 밥, 국, 김치, 콩나물, 두부, 나물, 고기 등을 먹었어요. 하지만 가공식품은 못 먹었지요. 하지만 오늘날은 햄, 라면, 카레 등 가공식품을 먹을 수 있지요. 옛날에 먹었던 두부, 밥, 김치, 나물 등은 오늘날도 먹지요. 또 음식을 요리하는 재료와 기구도 달라졌어요. 옛날에 있던 김장독은 김치 냉장고로, 멧돌은 믹서로, 가마솥은 전기밥솥으로 바뀌었지요. 또 절기에 따라 먹는 음식도 달라요. 설날에 떡국, 추석에는 송편, 여름철에는 삼계탕, 동지에는 팔죽을 먹지요. 옛날과 오늘날은 된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다르답니다. 옛날에는 주로 집에서 된장을 만들어 먹었지만, 오늘날은 가게나 마트에서 사 먹을 수 있지요.

지금까지 잘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활동 결과 15)

주제: 달라진 주생활

진○준

미국인들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진○준입니다. 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달라진 주생활을 소개하겠습니다. 달라진 주생활에 대해 소개하는 까닭은 우리나라의 옛날과 오늘날의 달라진 집과 관련된 생활 모습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초가집과 기와집에서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에서 삽니다. 옛날 초가집과 기와집을 한국식 집, 즉 ‘한옥’이라고 부르고,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서양식 집, ‘양옥’이라고 부릅니다. 옛날 한옥에는 온돌이 있고, 오늘날에는 온돌의 방식을 이용한 보일러가 있습니다. 온돌은 돌이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으면서 방 안을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옛날에는 밤이 되면 호롱불을 사용하여 방 안을 밝혔지만, 오늘날에는 전기를 사용합니다. 오늘날에는 집집마다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우물이나 시냇가에서 물을 길어와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활동 결과 16)

주제: 달라진 놀이 생활

고○경

안녕하세요? 저는 100% 한국인인 고민경이에요. 저는 이 글을 보고 계실 미국인 분들에게 한국의 달라진 놀이 생활을 설명하려고 해요. 이 글을 읽고 미국 분들께서 한국의 달라진 놀이 생활을 잘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의 한국 아이들은 공기놀이, 실뜨기, 자치기, 말뚝 박기, 고무줄놀이, 비사치기, 돌차기 놀이, 땅따먹기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로 직접 장난감을 만들어 사용했어요. 장난감을 만드는 것도 일종의 놀이였죠. 예를 들어, 달력을 접어서 딱지치기를 하고 놀았죠. 하지만 외국의 장난감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은 외국의 스포츠(축구, 농구, 테니스 등)를 하고, 전자기기로 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아이들은 외국의 스포츠와 전자기기로 하는 놀이를 즐겨하죠. 하지만 아직도 옛날의 놀이를 자주 하기도 한답니다.

미국 분들! 그럼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활동 결과 17)

주제: 달라진 의생활

박○정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정이에요. 제가 의생활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옛날부터 소개할게요. 옛날에는 한복을 입었어요. 여자는 치마, 저고리, 장옷을 입었어요. 남자는 바지, 저고리를 도포를 입고, 갓을 썼어요. 한복에는 주로 오방색을 사용했다고 해요. 한복은 품이 넉넉하고 아름다워서 누구든지 맵시를 낼 수 있어요. 또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루어 선이 곱지요. 그다음 오늘날을 소개할게요. 옛날에는 매일 입던 한복을 이제는 특별한 날에만 입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한복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여자들은 바지를 입을 수 있게 되었고, 옷을 입을 때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번에는 신발에 대해 소개할게요. 옛날에는 짚신, 나막신, 고무신을 신었어요. 오늘날에는 운동화, 구두 등을 신어요. 또 옛날에 비가 오는 날에는 도롱이를 입었고, 여름에는 모시옷과 삼베옷, 겨울에는 비단옷과 무명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우비를 입지요. 여름에는 반팔, 반바지를 입고, 겨울에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모자, 장갑 등으로 추위를 이긴답니다.

할머니, 이렇게 옷과 관련된 생활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계속 변해갈 모습이 궁금해져요. 이만 안녕히 계세요.

#### 활동 결과 18)

주제: 달라진 식생활

문○석

동생아, 내가 식생활의 달라진 모습에 대해 알려줄게. 식생활은 먹을거리와 관련된 것을 말하는 거야.

먼저 옛날의 음식에 대해 소개하자면, 옛날에는 여자들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고, 남자 어른들은 주로 혼자 음식을 먹었어. 옛날 사람들이 주로 먹었던 것은 밥, 된장국, 콩, 두부, 김치, 고사리 등을 먹었어. 옛날부터 지금까지 먹는 세시음식은 계절 음식을 말하는 거야. 설날에는 떡국, 여름철에는 삼계탕을 먹었고, 추석에는 송편을 먹었어. 겨울 동지에는 팔죽을 먹었다.

오늘날에는 여자나 남자가 모두 요리를 할 수 있고, 식탁이나 탁자에서 가족이 다 같이 음식을 먹어. 오늘날 주로 먹는 음식은 밥, 국, 김치 등 옛날부터 먹었던 음식도 먹지만 소세지, 돈까스 등 외국에서 들어온 음식도 많이 있단다.

옛날과 오늘날 달라진 식생활에 대해 잘 이해하길 바라. 안녕.

활동 결과 19)

주제: 달라진 주생활

김○주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주예요. 제가 집과 관련된 주생활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옛날에는 초가집, 기와집 등 한옥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의 양옥에서 살아요. 옛날에는 집 안에 화장실이 없어서 밖에 있었지만, 요즘에는 화장실이 집 안에 있어요. 또 옛날의 집은 어두워지면 호롱불 등으로 공부를 하였고, 오늘날에는 어두워지면 전기로 불을 켜면 집 안이 환해져요. 왜 이렇게 옛날과 오늘날이 달라졌다면 사람이 많아지고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온돌을 사용해서 겨울에 집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오늘날에는 온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든 보일러를 켜면 따뜻해져요. 또 옛날에는 수도 시설이 없어서 물을 우물이나 시냇가에서 길어와 사용했지만, 오늘날에는 집집마다 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물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불편한 점도 있지만, 한옥은 건강에 좋다고 해요. 한옥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나무와 짚, 흙, 한지 등을 재료로 사용해서 지어요. 또한 황토로 만든 벽이나 방바닥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해요. 이처럼 한옥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서 지어서 건강에 이롭다고 해요.

옛날과 오늘날의 주생활에 대해 설명해 보았어요.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활동 결과 20)

주제: 달라진 놀이 생활

최○훈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께 달라진 놀이 생활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옛날 어린이들은 자치기, 말 타기, 비사치기, 실뜨기, 고무줄놀이 등을 하였고 주로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가 하는 놀이가 달랐습니다. 오늘날 어린이들은 축구, 야구, 피구, 농구, 비디오 게임, 핸드폰 게임, 보드 게임, 컴퓨터 게임 등을 하면서 노니다. 물론 옛날부터 계속 하던 놀이를 지금도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자연에서 주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이용하여 놀았고, 오늘날에는 문구점이나 마트에서 놀이 도구를 사서 놀거나, 전자기기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렇게 옛날과 오늘날의 놀이가 변한 까닭은 첫째, 과학이 발달해서, 둘째, 전자 기기가 많아져서, 셋째, 외국의 놀이가 전해져서, 넷째,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부족해서, 다섯째, 같이 놀 수 있는 가족과 친구가 줄어들어서, 여섯째, 놀이 공간이 달라져서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렇게 달라진 놀이 생활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할머니께서도 잘 이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활동 결과 21)

주제: 달라진 의생활

강○린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강○린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의생활에 대해서 외국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옛날 의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한복'이라는 것을 입었는데, 남자들은 바지를 입고 여자는 치마만 입었습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 남자는 ‘도포’라는 것을 입고, 여자는 ‘장옷’이라는 것을 입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서양식 옷이 들어오면서 양복이나 셔츠를 입습니다. 옛날에 비해 남녀 옷 차별이 줄어들어서 여자들도 바지를 입을 수 있고 서로 비슷하게 옷을 입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옷감 재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옛날에는 주로 재료를 자연에서 구해서 손으로 다 만들었지만, 오늘날에는 공장에서 옷감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종류도 다양하고 좋아졌습니다. 이러한 옷감으로 기계를 통해 많은 옷을 한꺼번에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의생활에 대한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활동 결과 22)

주제: 달라진 식생활

차○성

안녕하세요, 외국인 아저씨.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달라진 식생활에 대해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요리 방법을 비교하면 옛날에는 부엌에서 여자들이 주로 쪄고려 앉아서 요리를 하였고, 가마솥에 밥을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부엌에서 여자와 남자가 같이 서서 요리를 하고, 전기밥솥을 이용해 밥을 짓습니다.

옛날에는 밥, 나물 반찬, 김치, 국 등을 먹었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음식들을 똑같이 먹지만 많은 카레, 돈가스 외국 음식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또 햄, 소시지, 라면과 같은 가공식품도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생겨난 이유는 과학도 발달하고, 사회 문화 발달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식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잘 지켜봐 주세요.

활동 결과 23)

주제: 달라진 주생활

정○은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외국 분들에게 우

리나라의 달라진 주생활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옛날에는 초가집이나 기와집에서 살았습니다. 초가집은 짚, 나무로 만들었고, 기와집은 기와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초가집은 평민들이 살았던 집이고, 기와 집은 양반들이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나 단독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졌고, 건축 기술이 발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집은 옛날 집에 비해서 여러모로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 집에는 전기가 없어서 호롱불을 켜는데 오늘날에는 모든 집에 전기 시설이 되어 있어 밝은 형광등을 켭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물이나 냇가에서 물을 떠왔지만, 지금은 수도 시설이 집집마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주생활에 대한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활동 결과 24)

주제: 달라진 놀이 생활

김○민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김○민입니다. 제가 이 놀이 생활을 소개하는 이유는 외국 분들에게 우리나라의 달라진 놀이 생활을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마을의 공터, 강 등에서 또래 아이들과 주로 놀았습니다. 옛날에는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실뜨기, 자치기, 땅따먹기, 공기놀이 등을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놀이를 주로 하며, 실내에서 혼자 하는 놀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놀이의 도구는 마트, 문구점 등에서 사서 이용합니다.

이렇게 놀이 생활이 변한 까닭은 외국에서 놀이가 많이 들어왔고, 어린이들의 생활 모습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외국 분들도 우리나라의 달라진 놀이 생활에 대해 잘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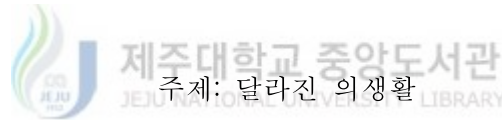
활동 결과 25)

주제: 달라진 의생활

김○현

영어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 ○현이에요. 오늘 우리나라의 달라진 의생활에 대해 선생님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먼저 옛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한복을 입었고, 남녀의 차이가 심했어요. 남자는 바지, 저고리, 도포, 갓 등을 입었고, 여자는 치마, 저고리, 장옷을 입었어요. 여름에는 모시옷, 삼베옷을 입었고, 겨울에는 비단옷과 무명옷을 입었어요.  
오늘날에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한복을 입어요. 그리고 옛날에 비해 남녀 차이가 많이 줄어들어서 서로 편하게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생활 한복이 생겨서 평소에 편리하게 한복을 입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의생활이 계속 변화할 것 같아 기대돼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활동 결과 26)



현○유

할머니께, 안녕하세요? 제가 할머니께 우리나라의 의생활을 소개하려고 이 글을 써요.  
옛날에는 한복을 입었고, 오늘날에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편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옛날 여름에는 모시옷과 삼베옷을 입었고, 겨울에는 비단옷과 무명옷을 입었습니다. 한복은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뚜렷하지만 오늘날에는 남녀 차별이 거의 없어요. 오늘날에는 한복을 편하게 만든 생활한복도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의생활은 여기까지예요. 다음에는 식생활과 주생활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활동 결과 27)

주제: 달라진 놀이 생활

김○우



할머니께

안녕하세요, 저는 달라진 놀이 생활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먼저 옛날부터 소개할게요. 옛날에는 공기놀이, 자치기, 비사치기, 팽이치기, 굴렁쇠 굴리기, 땅따먹기, 연날리기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이 도구는 직접 만들거나 자연에서 구한 재료를 이용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들기 힘든 경우에는 어른들에게 부탁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축구, 야구, 골프, 배구, 피구, 컴퓨터 게임, 바둑, 장기, 오목, 알까기, 보드게임, 핸드폰 게임 등을 하면서 놀입니다. 놀이의 도구는 주로 마트에서 사거나 전자기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옛날과 오늘날의 놀이가 달라진 이유는 과학이 발달했고, 아이들이 노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놀이 생활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